

=^^=호랑이선생님 & 신나는 국어
& 신나는 수UP^^ 성적도 UPUP↑↑



호랑이 선생님 생존국어
(국어 교과서 재구성 교재)

국語 어語



KOREA DIGITAL MEDIA HIGH SCHOOL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펴낸이 : 성 기 하 선생님

호랑이샘 생존국어



차례 Contents

1 문학의 빛깔

- 01 서정 갈래의 이해(실전문제 01~08)
- 02 서사 갈래의 이해

2 바른 언어 생활

- 01 음운
- 02 단어

3 한국 문학의 흐름

- 01 고전 시가
- 02 고전 소설

4 독서 탐구

- 01 인문·예술
- 02 사회·문화
- 03 과학·기술
- 04 주제 통합

호랑이샘 생존국어



1 문학의 빛깔

- 01 서정 갈래의 이해
- 02 서사 갈래의 이해

01. 서정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1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이처럼 떠돌으라,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라, 남북이라,
㉡ 내 몸은 떠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 보습 : 쟁기, 극쟁이 등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쇠조각

(나)

돌각담에 머루 송이 껌하니 익고
 자갈밭에 아즈까리 알이 쏟아지는
 잠풍하니* 별바른 골짜기다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였다

집이 몇 집 되지 않는 골안은
 모두 터알*에 김장감이 퍼지고
 뜨락에 잡곡 날가리가 쌓여서

어니 세월에 뷔일 듯한 집은 보이지 않았다
 ⊕ 나는 자꼬 골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골이 다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능와집이 한 채 있어서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바른 마당에는 꿀벌이 스무나문 통 있었다

⊙ 낮 기울은 날을 햇별 장글장글*한 뒷마루에 걸어앉아서
 지난여름 도락구를 타고 장진(長津)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국화꽃도 시들고 이 바즈런한 백성들도 다 제집으로 들은 뒤에 이 골안으
 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 백석, 「산곡—함주시초 5」

- * 잠풍하니 : 잔풍(殘風)하니.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 * 터알 : 집의 울안에 있는 작은 밭.
- * 남길동 : 저고리 소맷부리에 이어서 대는 남색의 천.
- * 장글장글 : 바람이 없는 날에 해가 살을 지질 듯이 조금 따갑게 계속 내리쬐는 모양.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의성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간에게 특정 공간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시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 공간에 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다. (가)는 일제 강점기 집과 땅을 빼앗겨 고향을 떠나 유랑하던 조선인의 정한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려는 당대 조선인의 바람을 특정 공간에 대한 지향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현실의 삶에 지쳐 있던 시인이 함주 지역을 유랑한 체험을 담은 작품이다. 화자는 한겨울을 나기 위한 특정 공간을 찾고 있는데, 이는 답답한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싶은 시인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가)에서 집을 잃고 떠돌며 ‘새로운 탄식을 얻’었다는 것은 국권 상실로 인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신세가 된 조선인들의 정한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② (가)에서 ‘자칫 가늘은 길’을 ‘나는 나아가리라’는 것은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그러한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로군.
- ③ (나)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려고 한 것은 잠시나마 답답한 현실과 단절된 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④ (가)에서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나)에서 ‘이 골안’은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⑤ (가)에서 ‘별빛이 아득임’과 (나)에서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국화꽃’이 시드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화자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로군.

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 ② ㉡은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는 현재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④ ㉣은 소망이 조만간에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낸 것이다.

01. 서정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2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험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화자의 체념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2.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푸른 산빛’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깨치고’라는 시어를 통해 부정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옛 맹세’의 ‘굳고 빛나든’ 이미지가 ‘차디찬’이라는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화자와 ‘님’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향기로운’과 ‘꽃다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님’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새 희망’이라는 관념을 ‘들어부엌습니다’에서 연상되는 역동적 이미지로 연결함으로써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사랑의 노래’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님의 침묵’이라는 상반된 이미지와 병치함으로써 화자가 느끼고 있는 회한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낀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 접속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 : 의도적으로 어순을 도치시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모두 대립적인 시어와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적 대상으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반된 의미의 시어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의 화자가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면서도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은 대립적 의미의 표현을 병치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 것이군.
- ② (나)의 화자는 ‘모란’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었던 ‘봄’을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로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가)의 화자가 ‘염려’하는 행위와 (나)의 화자가 ‘삼백예순 날’ ‘우’는 행위는 모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적극적 노력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④ (가)의 화자는 ‘슬픔’이 ‘새 희망’으로, (나)의 화자는 ‘내 보람’이 ‘설움’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와 (나)의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는 모두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난 것이군.

01. 서정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3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黃昏)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人間)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나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십이성좌(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鐘)소리 저문 삼림(森林) 속 그윽한 수녀(修女)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가지없는 그들의 심장(心腸)이 ㉡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沙漠)을 걸어가는 낙타(駱駝) 탄 행상대(行商隊)에게나
아프리카 녹음(綠陰) 속 활 쏘는 토인(土人)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地球)의 반(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五月)의 골방이 ㉢ 안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來日)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암암히 :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게. 또는 깊숙하고 고요하게. (처음 이 시가 발표된 잡지에는 ‘정정(淸淸)히’로 되어 있으나 이를 오식으로 보고 ‘암암히’로 교정한 초판본 시집의 표기에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함. 상기는 『육사시집(1946)』 초판본에 따라 표기한 것임.)

(나)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옥 첩 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씹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옥 첩 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씹어진 시」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사형으로 연을 끝맺는 방식을 통해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②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행을 반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보여 주고 있다.

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황혼에 기대하는 바를 강조하며, 황혼에 대한 화자의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② ㉡ : 별들, 수녀들, 수인들의 연약함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낸다.
- ③ ㉢ : 화자가 골방에서 현재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며, 황혼을 통해 화자가 얻는 가치를 드러낸다.
- ④ ㉣ : 어릴 때의 동무들이 남아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과거와 달라진 삶에서 느낀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낸다.
- ⑤ ㉤ :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부각하며, 타지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와 윤동주는 방(房)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이나 자기 내면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다. 이육사는 (가)에서 좁은 ‘골방’ 안에 있는 화자가 자신으로부터 외부 세계로 관심을 넓혀 가며 타자 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모습과 미래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때 방에 고립되고 협소한 공간이 아닌 개방성과 확장성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부여된다. 윤동주는 (나)에서 어둡고 고립된 방을 암울한 시대 현실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공간으로 묘사한다. 시상 전개에 따라 방은 이전보다 밝아지는데, 이는 자아를 성찰하며 현실을 이겨 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① (가)에서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 나의 입술을 보내’는 것과 (나)에서 ‘최초의 악수’를 하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② (가)에서 ‘골방’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다고 표현한 것과 (나)에서 ‘육 첩 방’을 ‘남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군.
- ③ (가)에서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을 떠올린 것은 방의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이미지를, (나)에서 ‘나’의 모습을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전보다 밝아진 방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군.
- ④ (가)에서 ‘행상대’와 ‘토인들’을 떠올린 것은 관심을 외부 세계로 넓혀 가는 화자의 모습을, (나)에서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것은 자아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⑤ (가)에서 ‘푸른 커튼을 걷’을 ‘내일’을 떠올린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나)에서 ‘학비 봉투를 받아’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현실을 이겨 내겠다는 화자의 결심을 나타낸 것이군.

01. 서정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4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스러지고

㉡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달이가
우련 붙어라.

㉢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

(나)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㉔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놀린다.**

먼 길에 올 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㉕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는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인들은 시를 통해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형상화한다. (가)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움이 내면에 공명을 일으켜 유발한 특별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나)는 자연물에서 발견한 숭고한 덕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자연물을 예찬하고, 나아가 그러한 덕성을 지닌 자연물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① (가)에서 ‘하이얀 미닫이가 / 우련 붙어라.’는 떨어지는 꽃잎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가)에서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는 꽃이 지는 모습이 화자의 내면에 공명을 일으켜 느끼게 된 서글픔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는 넉넉한 사랑과 포용력을 지닌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예찬한 것이군.
- ④ (나)에서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플라타너스의 자세를 본받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군.
- ⑤ (나)에서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은 플라타너스에 대한 화자의 동반자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군.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② ㉡은 산을 유정물처럼 표현하여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을 통해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옮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은 플라타너스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에는 플라타너스와의 인연이 언젠가 단절될 것이라는 화자의 절망감이 담겨 있다.

01. 서정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5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山)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 울림은 헛되이
빈 골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이며
불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 박두진, 「도봉」

(나)

오늘도 해 다 저물도록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건 눈물로 숨은 그 사람
 오늘도 보이지 않네
 모낸 눈 가득 개구리들 울어
 ㉠ 저기 저 산만 어둡게 일어나
 돌아앉아 어깨 들먹이며 울고
 보릿대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들을 밝히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언젠가, 아 언젠가는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저 남산 꽃 같은 사람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하루, 이 하루를 다 찾아다니다
 짐승들도 집 찾아드는
 ㉡ 저문 들길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 김용택, 「그리운 그 사람」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을 통해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이다.
- ② ㉡ : 공간에서 느껴지는 적막감과 공허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의인법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리움이 강조되고 있다.

3. (가)의 【그대】와 (나)의 【그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대’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촉발하는 대상이고, ‘그 사람’은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을 위안하는 대상이다.
- ② ‘그대’는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대상이고, ‘그 사람’은 화자가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대상이다.
- ③ ‘그대’는 화자가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대상이지만, ‘그 사람’은 화자가 그 소재는 알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 대상이다.
- ④ ‘그대’는 화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찾고자 하는 대상이지만, ‘그 사람’은 화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다.
- ⑤ ‘그대’는 화자가 부정적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고, ‘그 사람’은 화자를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대상이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박두진의 「도봉」과 김용택의 「그리운 그 사람」은 각각 일제 강점기와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작가가 느끼는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상징적인 시어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모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자연물과 시·공간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① (가)의 ‘산새’와 ‘구름’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을 형상화하기 위해 활용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나)의 ‘꽃처럼’과 ‘남산 꽃 같은’은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종식할 대상을 형상화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이 밤’과 (나)의 ‘칙칙한 어둠’은 두 작품의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가)의 ‘오직’, ‘한갓’에는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의 ‘언젠가, 아 언젠가는’에는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의 ‘호오이 호오이’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의 ‘보릿대 들불’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01. 서정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6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 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남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나)

㉠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활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대상의 현재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가 바라는 바를 표출하고 있다.
- ⑤ (가)는 청각적 심상으로, (나)는 후각적 심상으로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2. <보기>의 ㉠, ㉡와 관련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산업화·근대화의 폐해를 그린 작품으로 평가되지만, ‘비둘기’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 ‘비둘기’를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현대 문명에 의해 훼손되고 파괴되는 자연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한다. 또 ㉡ ‘비둘기’를 보존보다는 개발을 중시하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시 변두리 주민을 형상화한 것이라 보기도 하고, ㉢ 물질만을 중시하는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 ① ㉠로 볼 때,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삶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함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② ㉠로 볼 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친다는 것은 자연을 위협하는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③ ㉡로 볼 때,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어다 / 가슴에 금이 갔다’는 것은 도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도시 변두리 주민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로 볼 때, 비둘기가 ‘지붕에 올라 앉아 /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낀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시 변두리 주민이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로 볼 때, ‘사랑과 평화의 새’인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 낳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정신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를 경험하는 현대인을 표현한 것이겠군.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나)에서 길은 단순히 우리가 걷는 물리적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길은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길의 상징성과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인생과 관련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① ㉣은 실패의 경험들과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믿는 이들이다.
- ② ㉤은 인생 전체로 볼 때, 인생에서 겪는 시련이나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여기는 이들이다.
- ③ ㉥은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닌 이들이다.
- ⑤ ㉤은 ㉥과 달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다양한 세상 경험에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다.

01. 서정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7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그늘 내린 발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던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 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쇠아쇠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都市)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 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 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 댕다.
 사람도 아무 곳이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참깨처럼 쇠아쇠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달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자기반성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조되는 삶의 자세를 지닌 인물을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문학은 생각이나 정서와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글로 형상화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작가가 표현하려 한 추상적 관념을 유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인물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할머니와 화자가 참깨를 터는 행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표현하려 하였습니다. (나)에서는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의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작품을 통해 작가가 나타내려는 추상적 관념이 무엇인지 말해 볼까요?

- ① (가)에서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있다며 힘을 주어 참깨를 내려친다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큰 성취를 얻었을 때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② (가)에서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된다고 할머니가 ‘나’를 꾸중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③ (나)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 등 뒤로’ 날아온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이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④ (나)에서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아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된다는 것은, 사랑은 운명처럼 불가항력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⑤ (나)에서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라는 것은,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무의미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젊은’은 할머니의 너그러운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처지를 부각한다.
- ② (가)에서 ‘연이어’는 ‘한 번’으로 표현되는 화자의 성급한 태도가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 ③ (나)에서 ‘천천히’는 ‘조용히’와 더불어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표출한다.
- ④ (나)에서 ‘호젓한’은 ‘우연히’ 시작된 사랑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 자세를 나타낸다.
- ⑤ (나)에서 ‘온종일’은 ‘울렁이며’로 표현되어 있는 사랑의 감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01. 서정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8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얹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 가에서」

* 석경 : 유리로 만든 거울.

* 조로 : 포르투갈어인 ‘조로(jorro)’에서 유래한 말로, ‘물뿌리개’를 의미함.

(나)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 진샅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려가는
㉢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 몸속마다에는
㉤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여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굵은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굽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명령문을 활용하여, (나)는 의문문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나)는 시적 대상을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조되는 시어를 제시하여 화자의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빗대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2. (나)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영향을 주는 초월적 존재가 머무는 공간이다.
- ② ㉡은 ㉠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인간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에서 화자가 만난 인간의 특성이 형성된 공간이다.
- ⑤ ㉤은 ㉡과 ㉢을 포함하는 공간이다.

3. <보기>는 선생님이 안내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보아야 할’ 것, 또는 ‘본’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의 화자는 자연물을 보아야 할 것으로 언급하며 변화의 과정에서 겪게 될 경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화자는 일상생활에서 본 사람들의 외면에 대한 인상을 드러낸 후, 그 속에 감추어진 힘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외면과는 달리, 내면에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 (나)를 감상해 볼까요?

- ① (가)에서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는,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삶이 실현될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가)에서 ‘묵은 사랑이 /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 젖어 있을 때’는, 화자가 변화의 과정에서 겪었던 내면의 갈등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불가마 하나씩 깃들여 있나 보다’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겉모습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나)에서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는, 사람들의 내면에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호랑이샘 생존국어



1 문학의 빛깔

01 서정 갈래의 이해(실전문제 01~08)

02 서사 갈래의 이해

02. 서사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1

타작 마당 돌가루 바닥같이 딱딱하게 말라붙은 뜰 한가운데, 어디서 기어들었는지 난 데없는 지렁이가 한 마리 만신에 흙고물칠을 해 가지고 바동바동 굴고 있다. 새까만 개미떼가 물어 뿔 때마다 지렁이는 한층 더 모질게 발버둥질을 한다. 또, 어디선가 죽다 남은 듯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종종걸음으로 마당 복판을 질러서 돌담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가]

군데군데 좀구멍이 나서 썩어 가는 기둥이 비뚤어지고, 중풍 든 사람의 입처럼 문조차 돌아가서, ㉠북쪽으로 사정없이 넘어가는 오막살이 앞에는, 다행히 키는 낮아도 해묵은 감나무가 한 주 서 있다. 그러나 그제라야 모를 낸 후 비 같은 비 한 방울 구경 못한 무서운 가뭄에 시달려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졌던 고목잎이 볼 모양 없이 배배 틀려서 잘못하면 돌배나무로 알려질 판이다.

<중략>

보광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작료와 또 소작료 매석에 대해서 너 되썩이나 되는 조합비와 비료 대금과 그것에 따른 이자를 바쳐야만 되었다. 그리고 비료 대금은 값는 기한이 해마다 호세와 같았다.

㉡의젓하게 교익에 기댄 채 인사도 받는 양 마는 양하는 이사(理事)님은 빌듯이 늘어놓는 구장의 말일랑 귀 밖으로, 한참 시끼시마 껌데기에 낙서만 하고 있더니, 문득 정색을 하고는,

"그런 귀치 않은 논은 부치지 않는 게 어때요?" 해 던졌다.

"....."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나두 인젠 그런 우는소리는 듣기만이라도 귀찮소. 호세만 내고 버티겠거든 어디 한 번 버티어들 보시구려!"

"누가 어디 조합 돈은 안 내겠다는 겁니까. 조금만 연기를 해 달 라는 거지요."

이번에는 또쥔이가 말을 받았다.

"내든 안 내든 당신들 입맛대로 해 보시오. 난 이 이상 더 당신들과는 이야기 않겠소."

이사님은 살결 좋은 얼굴에 적이 노기를 띄우더니, 그들 틈에 끼여 있는 곰보를 힐끗 보고는,

"고서방 당신은 또 뭘 하러 왔소? 작년 것도 못 다 내고서 또 무슨 낯으로 여기 오우?"

매섭게 꼬집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장부를 뒤적거리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일행은 허탕을 치고 밖으로 나왔다.

며칠 뒤, 저수지 밑 고서방의 논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그에 ㉢'입도차압(立稻差押)'의 팻말이 붙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차압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피땀을 흘려 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기보다, 꼼짝없이 인젠 목숨을 빼 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고서방은 드디어 야간 도주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애터지는 말로써 그들의 뒤를 염려했다. 무심한 가을비는 진종일 고서방이 지어 두고 간 벼이삭과 차압 팻말을 휘두들겼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당산 등에서 여우가 울어 대고, 외상술도 먹을 곳이 없어진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하루 아침, 깨어진 징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였다. ㊸그들의 손에는 열음 못한 빈 짚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가지고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아낙네들은 전장에나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만약 보광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그러나 또췌이, 들깨, 철한이, 봉구 - 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 짚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 산길을 더위 잡았다. ㊸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꿈무늬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댔다.

-김정한, '사하촌(寺下村)'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립적 관계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 ② 자연적 배경을 이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③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 ④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의 인과 관계를 개연성 있게 밝히고 있다.
- ⑤ 약자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점차 현실의 모순을 자각해 가고 있다.

2. 상황에 대처하는 마을 사람들의 대응 방식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더니.
- ②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 ③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더니.
- ④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문다더니.
- 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은 황폐화된 마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② ㉡은 구장을 대하는 이사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은 보광사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 ④ ㉣은 보광사에 올라가는 농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 ⑤ ㉤은 해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 결말을 암시한다.

서술형 1.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소재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내 용	상징하는 소재
지주들의 횡포에 고통 받는 성동리 농민들	1)
성동리 농민들을 괴롭히는 지주	2)

서술형 2. 소설 구성 단계에서 [가]의 단계를 쓰고, 소설 구성 단계상 [가]의 단계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 1) [가]의 소설 구성 단계 :
- 2) [가] 구성 단계의 역할 :

02. 서사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2

부인네 정성이 무서운 겹디다. 꼬박 삼 년이군. 나 같으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아 오신대도 그 짓 못해요.

자, 그러니 말이지요. 우리 아저씨는 양반이 작히나 양심이 있고 다아 그럴 양이면, 어어허 내가 어서 바빠 몸이 충실해져서, 어서 바빠 돈을 벌어다가 저 아내를 편안히 거느리고 이 은공과 전날의 죄를 갚아야 하겠구나…… ㉠이런 맘을 먹어야 할 게 아니라구요?

아주머니의 은공을 갚자면 밭에 흙이 묻을세라 업고 다녀도 참 못다 갚지요. 그리고 저러고 간에 자기도 인제는 속 차려야지요. 허기야 속을 차려서 무얼 하재도 전과자니까 관리나 또 회사 같은 데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야 자기가 저지른 일인 걸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 막 벗어 부치고 노동이라도 해야지요. ㉡대학교 출신이 막벌이 노동이라니께 풀 가관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걸 보고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만약 우리 증조 할아버지네 집안이 그렇게 치패¹⁾를 안 해서 나도 전문 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혹시 우리 아저씨 모양이 났을지도 모를 테니 차라리 공부 많이 앓고서 이 길로 들어선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인제는 기껏 해 먹을 계란 막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요 보통 학교 사 년 겨우 다니고서도 시방 앞길이 환히 트인 내게다 대면 고즈카이만도 못하지요.

아, 그런데 글세 막벌이 노동을 하고 어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 살아날 만하니 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맘보를 먹고 하니, 내 참 기가 막혀!

아아니, 그놈의 것 하구는 무슨 대천지원수가 졌단 말인지, 어쨌다고 그걸 끝끝내 하지 못해서 그 발광이고?

그러나마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인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인지, 필경은 붙잡혀 가서 징역사는 놀음? 아마 그놈의 것이 아편하구 꼭 같은가 봐요. 그렇길래 한번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난다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군 그래요. 불한당패딘데요. 하릴없이 불한당 뺨디다.

저어, ㉢서양 어디선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몇 놈이 양지쪽에 모여 앉아서 놀고먹을 궁리를 했더라나요. 우리 집 다이쇼가 다아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 줍디다.

게, 그 녀석들이 서로 구누를 하기를, 자,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니 그건 도무지 공평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란 건 이목구비하며 사지 육신을 꼭 같이 타고 났는데, 누구는 부자로 잘살고 누구는 가난하다니 그게 될 말이나. 그러니 부자가 가진 것을 우리 가난한 사람들하구 다 같이 고르게 노나 먹어야 경우가 옳다.

야아, 그거 옳은 말이다. 야, 그 말 좋다. 자, 노나 먹자.

아, 이렇게 설도²⁾를 해 가지고 우우 하니 들고일어났다는군요.

아아니, 그러니 그게 생 날 불한당놈의 짓이 아니고 무어요?

<중략>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허구 말이다,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걸인,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 켜정 생활에다가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㊸네,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매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구두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 채만식, ‘치숙(痴叔)’

1) 치패 : 살림이 완전히 결판이 남.

2) 설도 :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설명함.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4)

<보기>

- (가)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히고 있다.
 (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인물의 생각이 점차 변하고 있다.
 (라) 표면적 진술과 이면 의도의 대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나’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가), (나) ② (나),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2. 윗글에서 ‘나’와 ‘아저씨’가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6)

- ① ‘나’는 ‘아저씨’가 가장으로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나’는 ‘아저씨’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③ ‘아저씨’는 ‘내’가 실속 없는 허황된 욕망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④ ‘아저씨’는 ‘내’가 개인의 안일만을 우선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
 ⑤ ‘아저씨’는 ‘내’가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3.7)

- ① ㉠은 ‘아저씨’의 태도에 대한 ‘나’의 못마땅한 심리가 담겨 있다.
 ② ㉡을 통해 ‘나’는 남들의 시선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을 통해 ‘나’는 배움이 부족한 무지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④ ㉣을 통해 ‘아저씨’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⑤ ㉤은 ‘나’가 속마음과는 다른 말을 함으로써 ‘아저씨’와의 불편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9)

<보기>

‘치숙’은 지적 수준이 부족한 ‘신빙성 없는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서술자에 의해 가치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인물은 지적 수준과 나이 모두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은 서술자의 설정은 ‘나’의 관찰과 생각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독자들이 소설에 거리를 둔 채 접근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 효과를 얻게 된다.

- ① 서술자가 가치 판단을 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게 하는
 ② 서술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념의 진실성을 부각시키는
 ③ 세대 간에 겪어야 할 가치관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④ 순박한 화자의 순수함을 부각시켜 대상에 대한 조롱의 강도를 높이는
 ⑤ 독자가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02. 서사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3

“저 미친놈이 또 징을 치고 지랄해 싸면 어디 낚시질을 하겠소?”

“아닙니다유.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십쇼. 앞으로 물가에 얼씬못하게 헐 꺼ینگ게유. 저놈이 날마다 횡방을 치면 낚시꾼들이 안 올게고, 그라믄 우린 굶어죽을 켜디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유?”

붕구는 입에서 담배를 빼 들고 사뭇 흥분한 어조로 다급하게 말했다.

“왜 미쳤답니까?”

낚시꾼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땀 때문이지라우. 고향을 잃고 도회지로 나갔다가 마누라꺼정 도둑맞고 오장이 회까닥 뒤집혔다고 허드만유.”

“마누라를 도둑맞아요?”

빨간 모자는 조금씩 깎닥거리는 찌를 향해 시선을 팽팽하게 던지며 물었다.

“가난하고 못난 촌놈 마다하고 잘난 도회짓놈하고 배가 맞은 거지유. 어이쿠 물었네요. 감안은 되느만유.”

빨간 모자가 아이들 손바닥만 한 봉어를 낚아 올리자, 붕구는 빠른 솜씨로 낚싯줄을 잡아 낚시에서 봉어를 빼 구덕에 넣고 입감까지 끼워 주었다.

“그래서 미친 게로군!”

“고향 잃고 마누라꺼정 뺏겼으니 안 미치게 생겼남유?”

“미인이었소?”

낚시꾼은 흥미 있다는 듯 피시시 웃음을 머금어 날리며 물었다.

“촌에 미인이 있간디유? 새끼 하나만 낳으면 철푸터 엉덩판만 커지고 무신 매력이 있어 야지유. 그래도 그 칠복이 여편네는 얼굴도 반반하고 도회지 바람을 묵어서 촌티는 벗었지라우. 칠복이헌티는 좀 과헌 여자지유.”

“마누라 뺏기고 원, 쟁피해서 지랄한다고 고향엔 와요?”

“그러다마다유. 하지만, 오죽했으면 고향에 뭐 볼 거 있다고 다시 왔겠남유? 결국 우리덜도 도회지에 나갔다가 발을 못 붙이고 다시 돌아와서 이르게 낚시꾼들 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요, 으디 갈 데가 있어야지유. 굶어죽어도 고향 선산에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 땀시…….”

붕구는 푸우 한숨 섞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멀고 회한에 가득한 눈으로 산자락 모퉁이 옛날 창평 고씨 제각이 있던, 편편한 곳에 즐비하게 늘어선 매운탕집 주막들을 바라보았다. 지난봄까지만 해도 선산을 버리고는 죽어도 방울재를 떠나지 않겠다면서 처음부터 집을 뜯어 옮기고 그대로 눌러앉은 박팔만이네를 제하고, 다섯 집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열한 집으로 늘어났다.

새로 생긴 방울재 매운탕집들 앞으로는 아카시아 숲이 휘윽하게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있고, 아카시아 숲 너머로는 호남 고속 도로와 연결되는 좁장한 신작로가 뻗쳐 들어오고, 그 길을 따라 낚시꾼들이 타고 온 자가용 차들이 집 둘레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햇빛을 쏘

개어 날렸다. 봉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프고 어쭙잖게만 보였다.

말이 보상금이지, 보상 가격을 책정해 놓고도 일이 년 뒤에야 지불을 받고 보니, 이미 인근 농토 값은 몇 배로 뛰어올라 대토 잡기에 어려웠고, 도회지로 나가서 살자 해도 전세방을 얻고 나면 자전거 하나 가기도 힘든지라, 아무 짓도 못하고 솔래솔래 곳감 꼬치 빼 먹듯 하다가는 두 손바닥 탈탈 털고 영락없이 알거지가 되고 만집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중략)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둑후두둑 빗방울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아스름푸레하게 들려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 기침을 토해 내고 뺨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짹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쭈덕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쭈벌쭈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툭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껍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 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쨌면 바람 소리와의 같은 그 징소리는 바로 뒤란의 아카시아 숲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아스름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소리지, 징소리지.”

봉구는 별떡 일어나 더듬더듬 담배를 찾아 성냥불을 붙였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인가 누웠다 앉았다 하며 담배만 피웠다. 자꾸만 꺾바퀴를 후벼파고 들려오는 징소리가 오목가슴 깊숙이에 가시처럼 걸린 때문이었다.

-문순태, ‘징소리’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대상을 희화화하여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 ②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여 작중 상황의 현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④ 과거의 삶에 대한 회상과 현재의 삶이 교차하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다르게 설정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를 통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방울재	B 도회지
a 과거의 방울재	→ a' 현재의 방울재

- ① A를 떠나 B로 갔던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시 A로 돌아왔다.
- ② 방울재 사람들에게 a는 빈곤한 삶이, a'는 풍족한 삶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 ③ a와 달리 a'는 외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양상이 펼쳐진다.
- ④ a에서와 달리 a'에서 칠복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 ⑤ 칠복은 B에서 가족 해체의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는 칠복이 a'에서 보이는 모습에 영향을 준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p>이 작품은 전남 장성의 방울재라는 수몰 지구를 배경으로, 거대한 댐 건설로 인해 실향민이 겪는 고향 상실의 아픔을 그려 내고 있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외형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의 사회적 양극화와 인간 소외 문제를 부각하며 성장의 그늘 아래 경쟁력을 잃어 가며 근대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맡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작가는 농촌 지역에서의 전통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여 근대화의 부정적 이면을 고발하고 있다.</p>

- ① 도시를 전전하다 다시 방울재로 돌아온 칠복이는 성장의 그늘 아래 근대화의 폐해를 떠맡은 사람을 상징하겠군.
- ② 농사짓던 땅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댐 근처에서 매운탕을 파는 사람들도 고향을 상실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호남 고속 도로'와 '낙시꾼들이 타고 온 자가용 차'는 1970년대의 외형적인 경제 성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칠복이가 치는 징 소리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방울재 사람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겠군.
- ⑤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칠복이를 쫓아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전통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군.

02. 서사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4

어느 날 저녁 광석이는 작업반 반장을 끌고 왔다. 두찬이는 화차칸에 벌렁 누운 채 알은 체도 안 했다. 하원이는 귀빈이라도 온 듯이 펍으나 대견스러워했다. 광석이는 술 몇 사발 값이나 내놔다. 하원이는 곧 술을 받으러 갔다. 겹해서 초 한 자루도 사 왔다. 그제서야 두찬이는 마지못해 일어나 앉았다.

“이러구 어째 사노?” 반장이 지껄었다.

“이것두 다아 경험입네다.”

광석이는 공손히 대답했다. 그러자 두찬이는 벌컥 성난 소리로,

“참례 마소.”

“그러니 어떻게 해야잖나? 밤낮 이러구 있을라나.”

“참례 말라는데, 참례할 거 머 있어? 남의 일에.”

“.....”

반장은 조금 뒤에 곧 자리를 떴다. 광석이는 배웅까지 하고 돌아왔다.

“두찬이 넌 그리 고집을 부리니?”

“머이 고집이야.”

“에이 참 딱해서.”

“.....”

“타향에 나와선 첫째, 사교성이 좋고 주변머리가 있어야 하는 긴데.”

광석이는 혼자소리처럼 궁얼댔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스물네 살이었다. 그러나 두찬이 편이 네댓 살은 더 들어 보였다.

흰칠하게 큰 키에 알맞게 뚱뚱한 것이며, 검은 얼굴에 뒤룩뒤룩한 눈, 두꺼운 입술, 술 사발이나 들어가면 둔하게 왁자지껄하지만 여느 때는 통히 말이라고는 없었다. 광석이는 키는 큰 편이나 조금 여위었고 까무잡잡한 바탕에 오흑 선 콧대, 작은 눈, 얇은 입술에 설 새 없이 날름거리는 혀바닥하며, 홀가분한 걸음걸이, 진득한 데라고는 두 눈을 찢고 보자 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원이는 나보다 한 살 밑이어서 열여덟 살이었다. 어디서나 입을 해에 벌리고 있곤 했다.

(중략)

한참 동안 조용했다. 별안간 두찬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두찬이 우는 김에 하원이의 쿵쾅거림이 푹 그쳤다.

"야."

두찬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화차 문은 열어 젖힌 채였다. 어수선한 바람이 몰아 들었다. 두찬이는 머리칼을 앞으로 흘뜨린 채 내 곁으로 다가왔다. 구석에서 하원이가 다시 소리내어 흑흑 흐느꼈다.

㉠"야,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어잉 이 새끼야, 넌 왜 그때 혼자만 간 왜 날 붙들지 않았. 부르지도 않았. 그리고 이제 와선 팔세야, 이 새끼야. 그땐 암말두 안허군 이제 와서. 너 잘한 것 같니, 잘한 것 같애? 하늘이 내려다본다, 이 뽀뽀한 새끼야."

다시 하원이 울음소리가 푹 그쳤다. 두찬이는 내 무릎을 움켜 잡았다. 그러나 다시 그냥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어잉, 이 적일 새끼. 개새끼, 취한 줄 아니? 취할 탁이 있니? 이 개새끼야, 요렇게 정신이 말뚱말뚱하다, 말뚱말뚱해. 왜 넌 암말두 안헌. 뛰디래 잡든지 칼침을 주든지 하잖구. 어허허허, 내. 이제 무신 낮쪽으로 동네 가간, 어허허허....., 광석아아....., 광석아하아."

두찬이는 벌렁 자빠져서 화차 안이 찌렁찌렁하도록 그냥 어이 어이 울어댔다,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두 일판에 나가도 없었다.

사흘째 지난 뒤, 어두운 화차칸 속에서 하원이는 지절였다.

"야하, 우리 이젠 꼬대거리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염주동 산꼭대기에다 집 하나 짓자. 거기 집 제두 일없닝기더라야. 잉야 조카야, 흐흐흐 우습다. 진짜 우스워. 난 너두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떨언 줄 안. 광석이 아 제비두 맘은 좋은 쪽은 못 됐시야, 잉. 우린 동네 갈 젠 꼭 같이 가자, 돈벌어서, 돈벌문 말야, 시계부터 사자, 어부러서. 그까즌 거, 꼬대거리 대구 하지 머. 광석이 아저씨가 두찬이 형은 못 봤다구 글자마, 알 거이 머야, 너까 나만 암말두 안헌 담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구만 글자마, 널부터 나 진짜 꼬대거리 할란다 잉. 조카야 우습다. 잉? 이케 잠이 안 온다 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탔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은 것을.....,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 내렸다. 하원이는 흐흐흐 웃었다. 지절였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한. 참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북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제비네 움물 말이다. 야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집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 그 형수 왜나 부지런했다. 가마이 보문, 천제나 새벽에 젼 먼저 물 푸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야하, 눈 보구 싶다, 눈이."

- 이호철, '탈향' -

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석은 두찬과 반장의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 ② 광석은 타지에서 살아가려면 사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두찬은 광석이 살아가는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 ④ 하원은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⑤ ‘나’는 하원을 떠나려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2. <보기>는 ㉠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요약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의 문맥상 ㉡에 담긴 심리를 바르게 추리한 것은?

<보 기>

네 사람이 화차 안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잠이 든 새에 화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넷은 모두 기차에서 다급하게 뛰어내린다. 그러다가 광석이가 기차에 부딪히면서 팔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 때 두찬이는 다친 광석이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려는 ‘나’에게 “내버려 두구 우린 우리대루 가, 거기 가문 뭐 한? 어떻게두 할 수 없잖니?” 하면서 반대편으로 그냥 가 버린다.

- 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 ② 자신의 행동에 자책감 느끼고 있다.
- ③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다.
- ④ 자신도 역시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려 한다.
- ⑤ 상대방이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3. <보기>와 같은 관점에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는 소설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 사회 현실의 모습, 역사에 대한 인식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설의 궁극적 목적은 저마다 어떤 형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들을 제시하고, 이들의 문제를 작품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깊이 있게 인간을 탐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전쟁 후 황폐화된 도시 생활 속에서 정신적 무기력과 우울에 빠진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강자의 횡포로 인해 온갖 고통을 겪어지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리고 있다.
- ③ 전쟁이 인간에게 주는 육체적, 정신적 불구자성을 지적하고,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인해 대립하던 두 인물이 화해하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전쟁 속에서의 인간성 회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상실한 인물을 통해 외부적 조건하에서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냉혹한 실존의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02. 서사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5

[앞부분 줄거리]

전과자요 만무방*인 응칠이 오랜만에 소작농인 동생 응오를 찾아왔다. 응오는 아내가 아프다며 아직까지 벼를 털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은 일 년 내내 성실하게 일했어도 벼를 털어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응오가 벼를 도둑맞자 응칠은 전과자인 자신에게 오는 의심을 피하고 응오를 돕고자 도둑을 잡기로 결심한다.

(가) “응고개를 어째 갔더냐 말이지?”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놀러 갔다, 거기가 노는 덴가?”

“글쎄, 그렇게까지 물을 게 뭐가. 난 응고개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팔이는 속이 타는지 코로 후응, 하고 날숨을 크게 뿜는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성팔이란 놈도 여간내기가 아니요 구장네 술인가 뭔가 떼어다 먹고 한 번 다녀온 놈이었다.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동리 평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 한다. 이번에 응칠이 저 역시 그 접수*에 걸렸음을 알고,

“그야 응고개라고 못 갈 리 없을 테…….”

하고 한 번 엇먹다, 그러나 자네두 알다시피 거 어디야 거기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동리라든 혹 모른다 하지마는 성한 사람이야 응고개에 뭘 먹으러 가나, 그렇지 자네야 심심하니까, 하고 앞을 짹 놀러 등을 떠본다. 여기에는 대답 없고 성팔이는 덤덤히 쳐다본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한참 있더니 호주머니에서 단풍갑을 꺼낸다. 우선 제가 한 개를 물고 또 하나를 뿜아내 대며,

“퀄런 하나 피게.”

매우 듬직한 낫을 해 보인다.

㉡이놈이 이(利)에 밝기가 몹시 밝은 성팔이다. 턱없이 퀄런 하나라도 선심을 쓸 퀄자가 아니리라 생각은 하였으나 그렇다고 예까지 부르대는* 건 도리어 저의 처지가 불리하다.

그것은 짜장* 그 손에 넘는 것이니,

“아, 웬 퀄런은 이래.”

하고 슬쩍 농치며,

“성냥 있겠나?”

일부러 불까지 거대게 하였다.

응칠이에게 액을 떠넘기어 이용하려는 고 야심을 생각하면 곧 달겨들어 다리를 꺾어 놔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당에 떠들어 대고 보면 저는 드러누워 침 뱉기. 결국 도적은 뒤로 잡지 앞에서 어른거리는 법이 아니다. 동리에 소문이 퍼질 것만 두려워하며,

“여보게, 자네가 했건 내가 했건간.”

하고 과연 정다이 그 등을 툭 치고 나서,

“우리 둘만 알고 동리에 말은 내지 말게.”

하다가 성팔이가 이 말에 되우 놀라며 눈을 말뚱말뚱 뜨니,

“그까짓 벼쭝 먹으면 어쩐가!”

하고 꺾꺾 웃어 버린다.

성팔이는 한굽 접히어 말문이 메었는지 얼뚱하여 입맛만 다신다.

“아예 말은 내지 말게. 응, 알지?”

하고 다시 다질 때에야 겨우 주저주저 입을 열어,

“내야 무슨 말을 내겠나.”

하고 조금 사이를 떼어 놓고,

“내야 무슨 말을……. 그런 염려 말게.”

하더니 비실비실 몸을 돌리어 저 갈 길을 내걸는다. 그러나 저 앞고개까지 가는 동안에 두 번이나 돌아다보며 이쪽을 살피고 살피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응칠이는 그 꼴을 이윽히 바라보고 입안으로 죽일 놈, 하였다. 아무리 도적이랄도 같은 동료에게 제 죄를 넘겨써려 함은 도저히 의리가 아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응오가 더 딱하지 않은가. 기껏 힘들여 지어 놓았다 남 좋은 일 한 것을 안다면 눈이 뒤집힐 일이었다.

이래서야 어디 이웃을 믿어 보겠는가…….

확실히 증거만 있어 이놈을 잡으면 대변에 요절을 내리라 결심하고 응칠이는 침을 탁 뱉어 던지고 산을 내려온다.

(나)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서 기어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뒀지 형겅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불이 뺨손을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㉞“이 자식아, 남의 버를 훔쳐 가!”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테굴테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굴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띠를 내려조겼다. 어이 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그 고개를 들고 필(疋)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걸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뻗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㉞“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통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붓짐을 들어 본다. 가뿐하니 깍 말가웃이나 될는지.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 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 버를 논에다 도로 털어 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 개서 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라. 허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알곶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그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렸다. 에이 고연 놈, 할 제 불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었다.

- 김유장, ‘만무방’

* 만무방 :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

* 섭수 : ‘수단’의 방언. ‘수단’은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솜씨와 꾀.

* 부르대는 : 남을 나무라거나 하는 듯이 거친 말로 야단스럽게 떠들어 대는.

* 짜장 : 과연 정말로.

* 북새 :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일.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 드러난 응철의 우려가 (나)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② (가)에서 응철이 응오에 대해 가졌던 연민은 (나)에서 분노로 바뀌고 있다.
- ③ (가)에서 응철이 품었던 성팔에 대한 의심은 (나)의 사건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 ④ (가)에서 성팔에게 한 응철의 당부는 (나)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 ⑤ (가)에 드러난 응철과 성팔 사이의 갈등이 (나)에서 응철과 응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2. ‘응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말을 타인들이 믿어 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 ②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이웃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 ③ 거칠고 불량스러워 보이지만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 ④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감을 잃어 가고 있다.
- ⑤ 현실에 맞서 가족의 해체를 막으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유정은 작품 속에 1930년대 농촌의 모습을 종종 담아냈다. 특히 그는 부당한 힘이나 부정적인 현실에 의해 공격받는 대상에 대한 동정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대상 또는 대상이 처한 상황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그의 작품은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의 욕망을 담고 있고, 절묘한 상황 설정이나 표현을 통해 비참하고 슬픈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① 벼를 털지 않은 응오의 상황을 통해 작가가 당대 농촌 상황을 부정적인 현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응철과 응오가 악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두 사람에 대한 작가의 동정 어린 시선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군.
- ③ 성팔과 응철이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대화를 나누는 희극적인 장면을 통해 작가는 모순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서민들의 욕망을 드러내고자 했군.
- ④ 응오가 자신의 벼를 훔치는 장면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응오를 포함한 당대 농민들의 피폐한 삶에 공감할 수 있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군.
- ⑤ 도둑을 잡은 응철이 자신이 벼르다가 잡은 도둑이 동생 응오라는 것을 알고 놀라는 상황을 통해 작가는 비참하고 슬픈 현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그 인물의 행적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 ② ㉡ : 인물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제시하며 인물의 행동을 의심하는 이유를 밝힌다.
- ③ ㉢ : 인물이 욕구를 자제하는 이유를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시한다.
- ④ ㉣ : 상대방의 의도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태도를 강조한다.
- ⑤ ㉤ : 자신을 합리화하는 인물의 태도를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한 인물의 반감을 드러낸다.

02. 서사 갈래의 이해

실전문제 06

찾아본 데 있는 것은 어찌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 뒤짐질할 때마다 마음에 묻어 드는 이 섬뜩한 두려움.

권투 선수는 링 위에서 싸우다가, 3분이 흐르면 세컨드가 기다리는 구석 자리의 **코너** **스톨**로 돌아간다. 그는 거기에서 1분 동안 피도 뺄고 물도 마시고 사타구니에 바람도 넣고 세컨드의 훈수도 듣고 하다 가는 공이 울리면 한결 가벼워진 걸음걸이로 다시 싸움터로 나선다. 구석 자리의 코너 스톨이 없으면 권투 선수는 얼마나 고단할 것인가. 미국 네바다 주의 황량한 열사(熱砂) 지대에는 ‘오아시스’라는 말이 들어간 상호(商號)가 유난히 많다.

권투 선수가 아닌 나에게도 구석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구석 자리로 돌아가 보고는 한다. 삶은 싸움이 아닐 것인데도 어쩐지 자꾸만 싸움 같아 보일 때면, 그 싸움을 싸우다 지쳤다 싶을 때면 돌아가 보고는 한다. 대구 근교의 소도시 경산(慶山)에 있는 기이한 은자(隱者)의 과수원으로 돌아가 보고는 한다.

내가 ‘도회(都會)의 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은사 일모 선생의 과수원을 나는 번잡한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요한 중심, 소용돌이 한중간의 부동의 중심이라고 부른다. 바퀴로 말하자면, 바퀴 테에서 가장 멀고, 굴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굴대도 돌기는 돈다. 하지만 그 회전은 오르내림이 극심한 가장자리의 회전과는 사뭇 다르다.

일모 선생의 과수원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주변인으로 사는 내 삶의 구석 자리이기도 하다. 그의 과수원에는, 내가 안고 가는 많은 문제의 해법이 있다. 하지만 그의 해법은 빌려도 좋고 안 빌려도 좋다. 거기에만 가 있으면 해법이 내 안에서 술술 풀려 나올 때가 많아서 그렇다. 그가 본보이는 삶의 태도가 내 몸과 마음의 항상성(恒常性)을 회복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 항상성이다. 일모 선생 과수원에는 과실나무도 있고 잡목도 있으며 채소도 있고 잡초도 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들려주는 금언이 있다.

사람은 무영등(無影燈)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모든살이는 무균실(無菌室)이 아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일모 선생은 ‘나’의 장서를 ‘하 사장’의 호텔에 보관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장학 기금인 운담 프로그램을 통해 그 비용을 지원한다. ‘하 사장’이 책을 보관하던 방을 빼고 대신 재래식 화장실 한편에 책을 쌓아 둔 채 보관하여 책을 훼손한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일모 선생은 ‘나’에게 똥서방[糞書房]을 차렸다고 놀리는 듯하면서도 사태를 안타까워한다.

“나는 자네가 하 사장을 이겨 먹을 줄 알았다. 느물느물하게 다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자네는 하 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천박한 수전노, 병적인 양생주의자,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대롱 눈 [管見(관견)] 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강(長江)이 구부러지지 않을 수 없다는 옛말이 있다. 그래, 하 사장에게 그런 흠절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네는 하 사장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

“자네 책을 화장실에 처넣은 것이 그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을까?”

“.....”

“자네는 하 사장 찾아갈 때 고급 위스키도 사고, 요릿감 쇠고기도 사 가지고 갔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술도 많이 사다 마셨는가? 이따금씩은 양주도 사다 마셨는가?”

“원래 제가 일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틈틈이 술을 좀 많이 먹습니다.”

“맥주를 상자째 사다 놓고 외국 손님들과도 나누어 마시고 하 사장과도 나누어 마셨는가?”

“.....”

“사람에게는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하다면서 하 사장을 데리고 나가 한 상 떡 벌여지게 잘 대접한 일도 있는가?”

“네. 하도 깨죽거려서 제가 본을 좀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책을 화장실에 처넣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 사장 같은 사람으로부터 돈 쓰는 법을 배울 나이는 지났습니다.”

“배울 나이가 지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배울 나이가 지났는데도 배우기를 거절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자네는 너무 고상한 일을 하느라고 발밑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인가. 자네는 하 사장 호텔에서 자네 주머니의 돈을 쓴 것이 아니다.”

“.....”

“우리가 자네의 한국 체재를 지원하지 않았는가?”

“.....”

“홍청망청 쓰지는 않았겠지만 만일에 자네에게 그 정도 지출할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지원은 안 받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

“.....”

“사람이란, 이렇게 보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려고 작정하면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다. 자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자네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는 하 사장에 대한 고려가 송두리째 빠져 있다. 자네는 하 사장을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쪽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자네는 말이야, 어떨 때 보면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아도 어떨 때 보면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

“.....”

“우리가 직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직선이겠는가? 혹시 곡선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자네 말마따나 대롱 시각으로 보고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가? 자네는 혹시 큰 곡선을 작은 직선으로 본 것은 아닐 것인가.”

- 이윤기, ‘숨은그림찾기 1 - 직선과 곡선’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상황의 실감 있는 재현을 통해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 ② 비유적 사례의 서술을 통해 삶의 이치에 대한 성찰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의식을 드러내는 독백 투의 진술을 통해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대조적 상황 전개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현실을 비꼬는 냉소적 어조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 코너 스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도시’에 비견되듯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② ‘과수원’에 비견되듯이 번잡한 상황에서 비켜선 공간이다.
- ③ ‘오아시스’에 비견되듯이 안정된 휴식이 지속되는 공간이다.
- ④ ‘바퀴 테’에 비견되듯이 변화무쌍한 운명에 맞닿은 공간이다.
- ⑤ ‘무균실’에 비견되듯이 인간 세상의 관계와 절연된 공간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에 따르면, 우리가 세계를 대하는 태도에는 근원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나-너> 관계이고 또 하나는 <나-그것>의 관계이다. 전자의 경우 <나>는 인격체로서 <너>와 마주 대하지만, 후자의 경우 <나>는 상대를 대상(<그것>)으로 경험할 뿐이다. 이때 <너> 혹은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다. 인간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너>와 대면함으로써만 참된 <나>가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너>도 언젠가는 <그것>으로 화(化)할 운명에 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되지 않는 <영원한 너>가 있는데, 이는 신(神)이다.

- ①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나’가 ‘하 사장’을 대상으로 대하듯 ‘하 사장’에게 ‘나’ 또한 대상일 수 있겠군.
- ②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면서 서로 인격체로 대한다는 점에서, ‘나’와 ‘일모 선생’의 관계는 <나-너> 관계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대롱 시각’을 경계하여 ‘직선’과 ‘곡선’의 관계를 올바르게 직시해야 하듯이, <나-너> 관계도 관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군.
- ④ 사람은 ‘무영등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너>, <나-그것> 관계의 의미를 염두에 두어야겠군.
- ⑤ 삶의 본모습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나’가 관계 속에서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영원한 너>에게 의지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겠군.

호랑이쌤 생존국어

국어



2 바른 언어 생활

01 음운

02 단어

02. 문법 1
음운

1. 음운의 체계

(1)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우리말의 음운에는 분절 음운(자음, 모음)과 비분절 음운(소리의 길이, 높낮이 등)이 있다.

(예) ‘물-불’을 구별해주는 ‘ㅁ’, ‘ㅂ’, ‘물-말’을 구별해주는 ‘ㄴ’, ‘ㄹ’

(2) 모음(21개)

공기가 목 안이나 입 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단모음**(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과 **이중 모음**(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이 있다.

① **단모음**(10개) :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혀의 높이가 높음), **중모음**(혀의 높이가 중간), **저모음**(혀의 높이가 낮음)으로,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앞쪽에 위치)과 **후설 모음**(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뒤쪽에 위치)으로, 입술의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입술이 둥그랴게 오므라들), **평순 모음**(입술이 평평하게 펴짐)으로 나뉜다.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키	ㄱ 위	ㅡ 를	ㅈ 주
중모음	ㅓ 게	ㅕ 되	ㅗ 었	ㅛ 소
저모음	ㅘ 내		ㅜ 가	

↳ 표준 발음법에서는 표와 같이 10개의 단모음 체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ㄱ위’와 ‘ㅕ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암기 Tip!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② **이중 모음**(11개)

㉠ **반모음**(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는 모음) ‘ㅣ’와 단모음 결합 : ㅄ, ㅅ, ㅆ, ㅈ, ㅊ, ㅊ, ㅈ, ㅊ, ㅈ, ㅊ

㉡ 반모음 ‘ㅛ/ㅜ’와 단모음 결합 : ㅜ, ㅛ, ㅜ, ㅛ

(3) 자음(19개)

공기가 목 안이나 입 안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조음 방법						
파열음	예사소리	ㅂ 바	ㄷ 다		ㄱ 가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자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서			ㅎ 해
	된소리		ㅆ			
비음		ㅁ 물	ㄴ 놀		ㅇ 이	
유음			ㄹ			

↳ 암기 Tip! ‘바다 가자 서해 물놀이 하러’

① **조음 방법**(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른 분류

- ㉠ 파열음 :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 파찰음 :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 ㉢ 마찰음 : 입 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틈 사이로 내보내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 ㉣ 비음 :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 유음 :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② **조음 위치**(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른 분류

- ㉠ 입술소리(양순음) :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 ㉡ 잇몸소리(치조음) : 혀끝이 윗잇몸에 닿거나 가까워져 나는 소리
- ㉢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 혀가 단단한 입천장에 닿아 나는 소리
- ㉣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 혀가 부드러운 안쪽 입천장에 닿아 나는 소리
- ㉤ 목청소리(후두음) : 목의 성대를 막거나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

③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거센소리는 된소리보다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4) 소리의 길이

우리말은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뜻이 구별된다. (예) 말 : (言)-말(馬), 눈 : (雪)-눈(眼), 밤 : (栗)-밤(夜) 등

2. 음운의 변동

1)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 (예) ‘꽃이[꼬치]’의 경우 ‘꼬’, ‘치’가 각각 한 음절
음절의 끝에 대표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받침이 올 경우,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받침 표기	대표음(발음)	(예)
ㄱ, ㅋ, ㆁ	[ㄱ] 가	국 → [국], 키웁 → [키웁], 박 → [박]
ㄴ	[ㄴ] 느	산 → [산], 손 → [손]
ㄷ, ㅌ, ㅊ, ㅍ, ㅅ, ㅆ, ㅎ	[ㄷ] 다	곧 → [곧], 술 → [술], 낮 → [날], 꽃 → [꼇], 옷 → [읏], 있다[읏다 → 읏따], 달는[달 : 는 → 단 : 는]
ㄹ	[ㄹ] 란	물 → [물], 굴 → [굴]
ㅁ	[ㅁ] 물	몸 → [몸], 마음 → [마음]
ㅂ, ㅍ	[ㅂ] 방	삽 → [삽], 잎 → [입], 높다[놉다 → 놉따]
ㅇ	[ㅇ] 올	강 → [강], 공 → [공]

↳ 대표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받침으로 올 때는 음운 변화가 없다. 암기 Tip! ‘가느다란 물방울’

*연음현상 *이어져 나는 소리 (예) 꽃이[꼬치]에서 앞 음절 끝소리 ‘ㄷ’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

1. 연음 현상이 먼저 실현되는 환경 : 앞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문법적인 뜻을 가진 형태소인 조사, 접사, 어미 등)가 올 때 앞말 받침소리를 뒷말 첫소리로 이어 발음한다.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꽃이[꼬치], 꽃을[꼬츨]
참고로, 겹받침 ‘ㄱㅅ, ㅃㅅ, ㄴㅅ’의 ‘ㅅ’이 뒤 음절로 연음될 때는 된소리 [ㅆ]으로 발음된다. (예) 낫 + 이 → [넉**ㅆ**이], 값 + 을 → [갑**ㅆ**을], 외곶 + 으로 → [외곶**ㅆ**으로/웨곶**ㅆ**으로]

2. 연음 현상이 나중에 실현되는 환경 : 앞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구체적인 대상이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뜻을 지닌 형태소)가 올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대표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바꾼 뒤 이어 발음한다.

앞말 받침 자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대표음으로 바꾼 후 연음하여 발음
꽃	+	아래	→	꽃 아래[꼇아래 → 꼬다래]
흙		위		흙 위[흑위 → 흐귀]

↳ ‘흙’의 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만 남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로, 교체가 아닌 탈락에 해당한다.

(3) *구개음화 *혀가 단단한 입천장에 닿아 나는 소리(센입천장소리) ‘스, 쑈, 츠’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만드는 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조사, 접미사, 어미)를 만날 때 ‘ㄷ, ㅌ’이 **경구개음**(센입천장소리) ‘ㄷ, ㅌ’으로 바뀌는 **현상**

- $\mathbf{C}, \mathbf{E} +$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rightarrow \mathbf{z}, \mathbf{z} +$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 모음 ‘ㅣ, ㅏ, ㅑ, ㅓ, ㅕ’로 시작하는 조사, 접사, 어미

(예) 굳이[구디 → 구지], 해돋이[해도디 → 해도지], 같이[가티 → 가치], 굳히다[구티다 → 구치다]

↳ ① 자음 축약(ㄷ + ㅎ → ㅌ) ② 구개음화(ㅛ → ㅠ)

〈음운 변동 전〉

말이



〈음운 변동 후〉

[마지]

〈음운〉

□ 卜 ㄷ | (4개)

ㅁ ㅏ ㅑ | (4개)

‘ㄷ’이 ‘ㅈ’으로 바뀜 = 교체 (음운의 개수 변동 없음)

- ① 구개음화는 자음 ‘ㄷ, ㅌ’이 모음 ‘ㅣ, ㅑ, ㅓ, ㅕ, ㅗ, ㅛ’와 조음 위치가 비슷한 ‘ㅈ, ㅊ’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동화 현상이다.
- ②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이라는 점에서 **비음화, 유음화**(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와 구별된다.

〈참고〉 **실질 형태소**(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결합**하거나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홀-+이불(실질 형태소)[호티불→호치불](x), [홀이불→홀니불→훈니불](○) / 잔디[잔지](x), 티끌[치끌](x)

↳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epsilon \rightarrow \text{ㄷ}$) ② 'ㄴ' 첨가 ③ 비음화($\text{ㄷ} \rightarrow \text{ㄴ}$)

2) 탈락

[음운의 탈락]

두 음운이 결합할 때 둘 중 어느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1)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두 개의 자음이 이어질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 첫째 자음이 탈락 닭 → [닥] , 밭다 → [밭따]
ㄷ ㄷ탈락 ㅈ ㄷ탈락

㉡ 둘째 자음이 탈락 값 → [갑] , 앉고 → [안꼬]
ㅂ ㅅ탈락 ㄴ ㅈ탈락

겹받침 표기	탈락	발음	(예)
‘ㄱ’, ‘ㄴ’, ‘ㄷ’ ‘ㄹ’, ‘ㄴ’, ‘ㄹ’, ‘ㄷ’, ‘ㅂ’	둘째 자음	[ㄱ, ㄴ, ㄷ, ㅂ]	넋 → [넉], 었다 → [언따], 많소 → [만쏘], 얹다 → [알따], 외곶 → [외골/웨골], 할다 → [할따], 앓는 → [알른], 값 → [갑]
‘ㄷ’, ‘ㄹ’, ‘ㅂ’	첫째 자음	[ㄱ, ㅁ, ㅂ]	닭 → [닥], 삼 → [삼], 읊다 → [읍따]

① 첫째 자음이 탈락하는 ‘ㄷ’, ‘ㄹ’, ‘ㅂ’의 발음을 먼저 외운다. 나머지 겹받침은 모두 둘째 자음이 탈락

② ‘ㄷ’과 ‘ㅂ’의 예외 발음 암기

• 용언 어간의 받침 ‘ㄷ’ +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 대표음 [ㄷ] 발음 + 어미의 ‘ㄱ’은 된소리 [ㄱ]으로 발음

(예) 맑게 → [말게], 맑고 → [말꼬], 맑거나 → [말거나]

(‘ㄷ’의 원래 대표음 [ㄱ] : 닭 → [닥], 흙 → [흑], 맑다 → [막따])

• ‘밭다’의 ‘밭-’은 [밭]으로 발음

(예) 밟고 → [밥 : 꼬], 밟다 → [밥 : 따] (‘ㅂ’의 원래 대표음 [ㅂ] : 얹다 → [알 : 따], 여덟 → [여덜])

• ‘넙죽하다, 넙둥글다, 넙적하다’의 ‘넙-’은 [넙]으로 발음

(예) 넙죽하다 → [넙쭈카다], 넙둥글다 → [넙똥글다], 넙적하다 → [넙쩌카다] (‘넙-’의 원래 대표음 [넙] : 넙다 → [넙따])

〈참고〉 종성에 오는 ‘ㄱ’, ‘ㅂ’은 쌍받침으로, 겹받침과 달리 하나의 자음으로 본다.

닭다 → [닥따], 있다 → [인따] ‘ㄱ→ㄱ’, ‘ㅂ→ㅂ’의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밭다 → [밭따] ‘ㄷ→ㄱ’의 변동은 자음군 단순화(탈락)
---	-------------------------------------

(2) 자음 탈락

① ‘ㅎ’ 탈락

용언(동사, 형용사) 어간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접미사 앞에 올 때 탈락한다. (‘ㅎ’을 표기는 하지만, 발음은 하지 않는다)

좋- + -아서 → 좋아서[조아서]
ㅎ 모음 어미 ㅎ탈락

쌓- + -이- + -다 → 쌓이다[싸이다]
ㅎ 모음 접미사 ㅎ탈락

② ‘ㄹ’ 탈락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도 반영되어 ‘ㄹ’을 적지 않는다. ㉞의 경우 항상 ‘ㄹ’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예) 딸 + -님 → 따님 / 달 + -님 → 달님

㉞ 용언의 ‘ㄹ’ 받침이 ‘ㄴ, ㅁ, ㅂ, ㅅ, ㅇ’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

날- + -니 → 나니 , 날- + -ㅁ니다 → 납니다
ㄹ ㄴ ㄹ탈락 ㄹ ㅁ ㄹ탈락

날- + -시다 → 나시다 , 날- + -오 → 나오
ㄹ ㅅ ㄹ탈락 ㄹ ㅇ ㄹ탈락

㉞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

솔 + 나무 → 소나무 , 달 + 달 + -이 → 디달이
ㄹ ㄴ ㄹ탈락 ㄹ ㄷ ㄹ탈락

활 + 살 → 호살 , 바늘 + -질 → 바느질
ㄹ ㅅ ㄹ탈락 ㄹ ㅈ ㄹ탈락

(3) 모음 탈락

① ‘ㅡ’ 탈락

용언 어간 끝소리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불을 끄- + -어 → 불을 꺼
ㅡ 모음 어미 ㅡ탈락

② *동음 탈락 *같은 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ㅏ, 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동일한 음이 하나 탈락한다.

차를 타- + -아서 → 차를 타서
ㅏ ㅏ 탈락

결심이 서- + -었- + -다 → 결심이 섰다
ㅑ ㅑ 탈락

단원종합문제

01

다음은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 보자.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감’과 ‘밤’이라는 두 단어에는 ‘ㄱ’와 ‘ㅁ’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와/과 ‘㉡()’이/가 다르다.

결국 ㉠과 ㉡으로 인해 두 단어의 뜻이 ㉢()된다.

따라서 ㉠과 ㉡은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하게 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므로 ㉠() (으)로 볼 수 있다.

02

다음은 음운 분류 체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개념을 적어 보고, <보기>의 음운을 분류해 보자.

(1)

음운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까?

소리를 낼 때에 장애(방해)를 받는가?

↓(Yes)

⑦ ()

(No)↓

$$\textcircled{L} \quad (\quad)$$

Ⓒ ()

(Yes)

소리를 낼 때에 혀나
입술이 움직이는가?

(No) ↓

②()

(2)

〈보기〉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ㅈ, ㅊ, ㅋ, ㆁ, ㅂ, ㅅ, ㅆ, ㅍ

⑦	
⑧	
⑨	
⑩	

03

다음 단모음 체계표의 빈칸을 채워 보자.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ㄱ()	ㄱ	ㅡ	ㄹ()
중모음		ㄴ()	ㄴ()	ㅣ	ㄹ()
저모음		ㅁ		ㅁ()	

04

다음 자음 체계표의 빈칸을 채워 보자.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조음 방법						
파열음	예사소리	ㄱ()	ㄷ		ㄱ	
	된소리	ㅃ	ㄴ()		ㄴ	
	거센소리	ㅍ	ㅌ		ㄷ()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ㅊ()			ㅎ
	된소리		ㅍ			
비음		ㅁ()	ㅂ()		ㅇ	
유음			ㅅ()			

05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쓰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자.

① 풀[]	② 부엌[]	③ 겉[]	④ 값[]
⑤ 밖[]	⑥ 전[]	⑦ 닭[]	⑧ 숲[]
⑨ 숨[]	⑩ 삶[]	⑪ 방[]	⑫ 샅[]

↓

→ 우리말의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는 ⑬ (, , , , ,)의 7개밖에 없다.

06

다음 단어의 표준 발음을 적어 보고 교체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자.

- ① 강릉 [] ② 국민 [] ③ 천리 [] ④ 속는다 []
 ⑤ 밥물 [] ⑥ 만이 [] ⑦ 훈련 [] ⑧ 곡물 []
 ⑨ 앞니 [→] ⑩ 꽃눈 [→] ⑪ 대관령 []
 ⑫ 흙만 [→] ⑬ 난로 [] ⑭ 설날 []
 ⑮ 달는 [] ⑯ 쇠불이 [] ⑰ 먹는 [] ⑱ 실눈 []
 ⑲ 붙이고 [] ⑳ 굳이 []
 ㉠ 옷맵시 [→ →] ㉡ 달히다 [→]
 ㉢ 숲만 [→] ㉣ 묻히다 [→]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07

다음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적어 보자. (단, 소리의 길이는 제외)

- ① 발을 [] 발 아래 [→] 발에 [] 발 위로 [→]
 ② 옷이 [] 옷 안 [→] 옷이다 [] 옷 아래 [→]
 ③ 꽃은 [] 꽃 위 [→] 꽃이야 [] 꽃 안 [→]
 ④ 겉으로 [] 겉 옷 [→] 겉을 [] 겉아가미 [→]
 ⑤ 무릎에 [] 무릎 위 [→] 숲으로 [] 숲 안 [→]
 ⑥ 늪에서 [] 늪 앞 [→] 부엌에 [] 부엌 안 [→]
 ⑦ 연필꽃이 [] 짓어서 [] 뒹이다 [] 깎아서 []
 ⑧ 값이 [] 값을 [] 값없다 [→] 값있다 [→]
 ⑨ 녀을 [] 녀 없다 [→] 없음 [] 맛없다 [→]
 ⑩ 외곶으로 [] 뚝으로 [] 웃음 [] 웃 위 [→]
 ⑪ 삶에 [] 읊아서 [] 여덟이 [] 밝아서 []
 ⑫ 닭이 [] 닭 앞에 [→] 흙을 [] 흙 위에 [→]
 ⑬ 앉아서 [] 핏은 [] 없으므로 [] 젊음 []
 ⑭ 맛있다 : 원칙 [→] 허용 []
 ⑮ 멋있다 : 원칙 [→] 허용 []

08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적고 된소리되기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자.

- ① 갈등 [] ② 갈세라 [] ③ 국밥 [] ④ 삶다 []
 ⑤ 할 바를 [] ⑥ 밀수 [] ⑦ 발전 [] ⑧ 밥상 []
 ⑨ 앓다 [] ⑩ 할 수는 [] ⑪ 육수 [] ⑫ 젊다 []
 ⑬ 할걸 [] ⑭ 숯불 [] ⑮ 할지라도 [] ⑯ 갈 곳이 []

㉠ ‘ㄱ, ㄷ, ㅂ’ 뒤 된소리	
㉡ 용언 어간 ‘ㄴ(ㄴ), ㅁ(ㅁ)’ 뒤 된소리	
㉢ 한자어 ‘ㄹ’ 뒤 된소리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된소리	
㉤ ‘-(으)ㄹ’로 시작하는 어미 내 된소리	

09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쓰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자.

① 숨이불[]	② 내복약[]	③ 샷일 []	④ 솔잎 []	⑤ 늑막염[]	⑥ 호박엿[]
⑦ 담요 []	⑧ 꽃잎 []	⑨ 식용유[]	⑩ 집일 []	⑪ 한여름[]	⑫ 눈요기[]



(1) 위 단어들은 모두 어근끼리 결합한 ()(이)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이)다.
(2) 위 단어들은 모두 앞말이 (자음 / 모음)으로 끝난다.
(3) 위 단어들은 모두 뒷말이 (자음 / 모음)으로 시작한다.
(4) 위 단어들은 뒷말이 (, , ,) 중의 하나로 시작된다.
(5) 위 단어들은 (1) ~ (4)의 조건일 때 뒷말에 ()이/가 첨가되는 () 현상을 보인다.

10

<보기 1>과 <보기 2>의 단어를 탈락의 유형이 같은 것끼리 묶어 보자.

<보기 1>			
① 값지다	② 등근 해	③ 물을 끓이다	④ 아드님
⑤ 닭이 우는 소리	⑥ 시를 읊는다	⑦ 마소를 기르다	⑧ 마음이 놓이다
⑨ 여달이문	⑩ 좋은 사람	⑪ 자리에 앉다	⑫ 자식을 낳아
⑬ 땅을 밟다	⑭ 다달이, 나날이	⑮ 줄을 끊어서	⑯ 열심히 사느냐
⑰ 빈 그릇을 훑다	⑱ 연필 여덟 자루	⑲ 생각이 많아서	⑳ 책을 읽다

(1) 자음군 단순화	(2) ㅎ 탈락
겹받침이 음절 끝에 올 때 자음 하나가 탈락	어간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접미사 앞에서 탈락

(3) ㄹ 탈락	
㉠ 용언의 ‘ㄹ’ 받침이 ‘ㄴ, ㅂ, ㅅ, ㅇ’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	㉡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

<보기 2>			
① 김치를 담가서	② 빨리 집에 가	③ 일기를 썼다	④ 약이 참 썼다
⑤ 찾길을 건너서 간다	⑥ 용돈을 모았다	⑦ 아파서 못 간다	⑧ 버스에 타서
⑨ 강아지가 예뻐서	⑩ 친구를 만났다		

(4) — 탈락	(5) 동음 탈락
용언 어간 끝소리 ‘—’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	‘ㅏ, ㅑ’로 끝난 어간에 ‘ㅏ, 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동일한 음이 하나 탈락

11

다음은 단어의 발음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보기>		
따뜻하다	→	[따뜻하다] → [따뜨타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축약
ㅅ → ㄷ		ㄷ + ㅎ → ㅌ

① 굳히다	→	[]	→	[]
		자음 축약		구개음화
		ㄷ + ㅎ → ㅌ		() → ()
② 술하다	→	[]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축약
		ㅌ → ㄷ		() + () → ()
③ 깨끗하다	→	[]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축약
		ㅅ → ㄷ		() + () → ()
④ 꽃 한 송이	→	[]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축약
		ㅎ → ㄷ		() + () → ()
⑤ 옷 한 벌	→	[]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축약
		ㅅ → ㄷ		() + () → ()

12

<보기>를 참고하여 제시된 단어의 발음과 음운의 개수를 파악하고 해당되는 음운 변동 유형을 적어 보자.

<보기>		
신라	→	[실라]
(5)개		(5)개 : 교체
• 교체 : 음운 개수의 변화 없음 • 축약 : 음운 개수가 줄어듦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짐) • 탈락 : 음운 개수가 줄어듦 (*하나의 음운이 없어짐) • 첨가 : 음운 개수가 늘어남		

① 담요	→	[]	:	[]
()개		()개		
② 국화	→	[]	:	[]
()개		()개		
③ 바늘 + -질	→	[]	:	[]
()개		()개		
④ 신여성	→	[]	:	[]
()개		()개		
⑤ 같이	→	[]	:	[]
()개		()개		
⑥ 물난리	→	[]	:	[]
()개		()개		
⑦ (글을) <u>쓰-</u> + <u>-어</u>	→	[]	:	[]
()개		()개		

13

다음은 실제 발음에서 음운의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보기>						
홀이불	→	[홀이불]	→	[홀니불]	→	[혼니불]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
		E → C				C → L

① 서울역	→	[] ‘ㄴ’ 첨가	→	[] 유음화 ㄴ→()		
② 발야구	→	[] ‘ㄴ’ 첨가	→	[] 유음화 ㄴ→()		
③ 휘발유	→	[] ‘ㄴ’ 첨가	→	[] 유음화 ㄴ→()		
④ 첫여름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ㅍ→ㄷ	→	[] ‘ㄴ’ 첨가	→	[] 비음화 ㄷ→()
⑤ 샅일	→	[] 자음군 단순화 ㅈ→()	→	[] ‘ㄴ’ 첨가	→	[] 비음화 ()→ㅇ
⑥ 솔잎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ㅍ→()	→	[] ‘ㄴ’ 첨가	→	[] 유음화 ㄴ→()
⑦ 낮일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ㅍ→()	→	[] ‘ㄴ’ 첨가	→	[] 비음화 ㄷ→()
⑧ 설익다	→	[] ‘ㄴ’ 첨가	→	[] 유음화 ㄴ→()	→	[] 된소리되기 ㄷ→ㅌ
⑨ 늦여름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ㅍ→()	→	[] ‘ㄴ’ 첨가	→	[] 비음화 ㄷ→()
⑩ 꽃잎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ㅍ→(), ㅍ→()	→	[] ‘ㄴ’ 첨가	→	[] 비음화 ㄷ→()

14

다음 단어들의 음운 변동 과정이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적어 보자.

(예) 못한 → [못한] → [모탄]

(교체) (축약)

- | | | |
|---|--|---|
| ① 한 일 → [한닐]
() | ② 쓰- + -어 → [써]
() | ③ 닳아 → [다라]
() |
| ④ 팔- + -느냐 → [파느냐]
() | ⑤ 축하 → [추카]
() | |
| ⑥ 읊조리다 → [읊조리다] → [읊쪼리다] → [읍쪼리다]
() () () | | |
| ⑦ 읊은 → [오른]
() | ⑧ 땀받이 → [땀바지]
() | ⑨ 쌓아서 → [싸아서]
() |
| ⑩ 굼기다 → [굼기다]
() | ⑪ 미달이 → [미다지]
() | ⑫ 각목 → [강목]
() |
| ⑬ 읊는 → [옴는]
() | ⑭ 논일 → [논닐]
() | ⑮ 집안일 → [지반닐]
() |
| ⑯ 밤을 → [밤웁] → [밤늑]
() () | ⑰ 앓던 → [안턴]
() | ⑱ 걷는 → [건는]
() |
| ⑲ 하얏다 → [하야타]
() | ⑳ 가- + -아서 → [가서]
() | ㉑ 꼬- + -어 → [꺼]
() |
| ㉒ 훌이불 → [훌이불] → [훈니불] → [훈니불]
() () () | ㉓ 옷 입다 → [옴입따] → [온닙따] → [온닙따]
() () () | |

15

다음 빈칸에 단어의 발음 과정과 해당하는 음운 변동 유형(교체, 축약, 탈락, 첨가)을 순서대로 넣어 보자.

(예) 꽃밭 [곧밭 → 곧밭] (교체), (교체)

- | | | |
|--------|---|--|
| ① 영업용 | [→] | (), () |
| ② 닦지 | [→] | (), () |
| ③ 비릇하다 | [→] | (), () |
| ④ 덮밥 | [→] | (), () |
| ⑤ 연잎 | [→] | (), () |
| ⑥ 값지다 | [→] | (), () |
| ⑦ 쌓는 | [→] | (), () |
| ⑧ 부억도 | [→] | (), () |
| ⑨ 읽는 | [→] | (), () |
| ⑩ 키웁만 | [→] | (), () |
| ⑪ 앞문 | [→] | (), () |
| ⑫ 밟는 | [→] | (), () |

호랑이쌤 생존국어



2 바른 언어 생활

01 음운

02 단어

02. 문법 2
단어

1. 형태소

(1) 단어 : 문장에서 **자립할**(혼자 쓰일) 수 있는 말,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하늘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말

이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하늘' 뒤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맑다

'맑-'과 '-다'는 각각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없으므로 전체가
한 단어

➡ 단어 3개로
구성된 문장

(2) 형태소

① 개념 :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실질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㉚ 실질적 의미 : 구체적인 대상, 또는 대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실제로 뜻이 있는) 의미

㉛ 문법적 의미 : 시간, 높임, 종결, 피동, 사동과 같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형식적인**(실제의 뜻은 약한) 의미

↑실질적 의미 → 아기, 사과'는 구체적인 대상, '먹-'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

(예) 아기 + 가 꽃- + 사과 + 를 먹- + -었- + -습니다

↳문법적 의미(기능)

가, 를	조사	앞말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와 같은 자격을 갖게 하는 기능
꽃	접사	사과에 '덜 익은'이라는 뜻을 보충하여 더해 주는 기능
-었-	어미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 (시간 표현)
-습니다		문장을 끝맺는 기능(종결 표현),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높임 표현)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형식적 의미)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참고> 형태소와 단어의 관계 : 형태소 ≤ 단어

형태소는 단어보다 더 작거나 같은 단위.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둘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형성한다.

하늘

↓

하늘

형태소 1개, 단어 1개

돌

+

다리

↓

돌다리

형태소 2개, 단어 1개

푸르-

+

-다

↓

푸르다

형태소 2개, 단어 1개

- 66 -

② 형태소의 분류

분류 기준	유형	성격	(예)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	조사,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어미, 접사(접두사, 접미사)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 (= 어휘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 동작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자립 형태소 전부(체언,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간
	형식 형태소 (= 문법 형태소)	형식적인 의미(문법적 기능)만 표시하는 형태소	조사, 접사, 용언의 어미

↳ 대부분 '자립 형태소 = 실질 형태소'이지만, 용언의 어간(예) '먹다'의 '먹-', '보다'의 '보-' 등만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임을 기억하자.

(예)

분류 기준	하늘	이	푸르-	-다
	명사	조사	형용사 어간	어미
자립성 유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적 의미 유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 형태소 4개로 구성된 문장

- ㉠ '하늘'(명사)은 혼자 쓰일 수 있는 하나의 형태소 ('하'와 '늘'로 쪼개지지 않는다.) - 자립
- ㉡ '이'(조사), '푸르-'(형용사 어간), '-다'(어미)는 혼자 쓰지 못하고 항상 다른 말에 결합하여 쓰는 형태소 - 의존
- ㉢ '하늘'(명사)과 '푸르-'(형용사 어간)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 - 실질
- ㉣ '이'(조사), '-다'(종결 어미)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문법적 의미만 가진 형태소 - 형식

2. 단어의 형성

(1) 단어의 분류

단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단일어, 복합어(파생어, 합성어)로 나뉜다.

단어

단일어 : 하나의 어근 (예) 하늘, 맑다, 먹었고 등
↳ ‘-다, -었-, -고’와 같은 어미는 단어 형성에서 고려하지 않음

복합어

파생어 :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단어 (예) 맨-손, 치-솟다, 믿-음, 먹-히-다 등

합성어 :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단어 (예) 밤-낮, 돌-다리, 돌아가다(돌다-가다) 등

① 어근(실질 형태소) :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② 접사(형식 형태소) :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 붙어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를 바꿔 주는 주변 부분

<참고> 어근과 어간, 접사와 어미의 구분

①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만들**(합성어나 파생어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개념

눈 + 물, 헛 + 기침, 웃 + -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눈, 물, 기침, 웃-’ → 어근
	특정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부분	‘헛-, -음’ → 접사

② ‘어간과 어미’는 **용언**(동사, 형용사)이 **활용할**(모습을 바꿀) 때 사용하는 개념

먹다, 먹으니, 먹고, 먹어서	바뀌지 않는 부분	‘먹-’ → 어간
	바뀌는 부분	‘-다’, ‘-으니’, ‘-고’, ‘-어서’ → 어미

③ 하나의 어근으로 만들어진 단일어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만 파생어, 합성어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 단일어 : **밟다**

㉡ 합성어 : **오가다**(오다 + 가다)

㉢ 파생어 : **짚밟다**

<div><div>밟-</div><div>-다</div></div> <div><div>어근</div><div>어말</div><div>어간</div><div>어미</div></div>	<div><div>오- 가-</div><div>-다</div></div> <div><div>어근 어근</div><div>어말</div><div>어간</div><div>어미</div></div>	<div><div>짚- 밟-</div><div>-다</div></div> <div><div>접두사 어근</div><div>어말</div><div>어간</div><div>어미</div></div>
---	---	--

- 68 -

(2) 파생어

①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 → 접두사 + 어근

㉠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는 접사로, 어근의 의미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한다.

뜻-	+	사과	→	뜻사과	군-	+	식구	→	군식구
접두사		어근		접두 파생어	접두사		어근		접두 파생어
‘덜 익은’		‘사과나무 열매’		‘아직 덜 익은 사과’	‘덜붙은’		‘함께 사는 가족’		‘가족 외에 덧붙어서 함께 사는 식구’

㉡ 접두사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흔치 않다. (*예외 : 강마르다, 메마르다, 솟되다, 엇되다 : 동사 → 형용사)

㉢ 어근에 의미를 더해 주므로 실질 형태소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②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 → 어근 + 접미사

: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는 접사로, 어근의 의미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단어의 품사를 바꿔준다.

㉣ 어근의 의미에 특정한 뜻을 더하는 경우

나무	+	-꾼	→	나무꾼	장난	+	-꾸러기	→	장난꾸러기
어근		접미사		접미 파생어	어근		접미사		접미 파생어
‘줄기와 가지로 된 식물’ (품사 : 명사)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		‘능숙하게 나무를 베거나 잡는 일을 하는 사람’ (품사 : 명사)	‘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짓’ (품사 : 명사)		‘그것이 심한 사람’		‘장난이 심한 아이’ (품사 : 명사)

↳ ‘-꾼’과 ‘-꾸러기’는 특정한 뜻을 더할 뿐, 단어(어근)의 품사를 바꾸지는 않는다 ↙

㉤ 단어(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

지우-	+	-개	→	지우개	공부	+	-하-	→	공부하다
어근		접미사		접미 파생어	어근		접미사		접미 파생어
‘글씨를 없애다’ (품사 : 동사)		‘간단한 도구’		‘글씨를 지우는 도구’ (품사 : 명사)	‘학문을 배우고 익힘’ (품사 : 명사)		‘어떤 작용, 행동을 이루다’		‘공부라는 행동을 이루다’ (품사 : 동사)

↳ ‘-개’와 ‘-하-’는 뜻을 더하면서, 단어(어근)의 품사를 바꿔준다 ↙

<참고> 단어(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주요 접미사

① 동사,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 주는 접미사

-(으)ㅁ, -기, -이, -개, -애	(예) 믿음(믿- + -음), 슬픔(슬프- + -ㅁ), 크기(크- + -기), 먹이(먹- + -이), 지우개(지우- + -개), 마개(막- + -애)
------------------------------	---

② 일부 어근 뒤에 붙어 동사, 형용사로 바꿔 주는 접미사

-하-, -스럽-, -롭-, -답-	(예) 공부 + -하- + -다(명사 → 동사), 걱정 + -스럽- + -다(명사 → 형용사), 새 + -롭- + -다(관형사 → 형용사), 남자 + -답- + -다(명사 → 형용사)
----------------------------	--

↳ ‘공부하다’와 같이 접미사 ‘-하-’가 붙는 경우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나 단일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자.

③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 주는 접미사

-이, -히	(예) 많이(많- + -이), 같이(같- + -이), 조용히(조용 + -히), 나란히(나란 + -히) ‘조용하다’의 어근 ↙ ‘나란하다’의 어근 ↘
---------------	---

④ 그 밖의 특이한 접미사

-어, -아, -우,	(예) 부터(불- + -어)(동사 → 조사), 조차(쫓- + -아)(동사 → 조사), 자주(자- + -우)(형용사 → 부사)
--------------------	---

(3) 합성어

① 통사적 합성어 :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

빛	+	나다	⇒	빛나다	첫	+	사랑	⇒	첫사랑
어근		어근		합성어	어근		어근		합성어
명사		동사		통사적 합성어	관형어		명사		통사적 합성어

‘주어+서술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조사는 생략 가능) ✓

관형어가 명사 앞에 오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 ✓

<참고>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① 명사 + 명사	(예) 집안, 논밭	④ 부사 + 용언	(예) 잘나다
② 관형어 + 체	(예) 새해, 온종일	⑤ 조사를 생략한 경우	(예) 힘(이)들다, 앞(에)서다, 본(을)받다
③ 부사 + 부사	(예) 곧잘, 더욱더	⑥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	(예) 돌아가다, 들어가다
		우	

② 비통사적 합성어 :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

뛰-	+	놀다	⇒	뛰놀다	부슬	+	비	⇒	부슬비
어근		어근		합성어	어근		어근		합성어
동사		동사		비통사적 합성어	부사		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연결 어미 ‘-어’가 생략되어 일반적인 단어 배열이 아님 ✓

부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단어 배열이 아님 ✓

<참고>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① 용언과 명사가 결합할 때 **관형사형 어미**(-(으)ㄴ, -는, -(으)ㄹ, -던) 생략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굳은살, 작은집, 큰집, 늙은이, 디딜방아	덮밥(덮은 밥), 검버섯(검은 버섯), 접갈(접는 칼)
용언 어간 + <u>-(으)ㄴ, ㄹ</u> + 명사	용언 어간 + 명사(관형사형 어미 생략)

②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연결 어미 생략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뛰어가다, 돌아가다, 알아보다, 벗어나다	뛰놀다(뛰어 놀다), 굶주리다(굶고 주리다), 검푸르다(검고 푸르다), 오르내리다(오르고 내리다), 높푸르다(높고 푸르다), 여닫다(열고 닫다)
용언 어간 + <u>-아/어</u> + 용언 어간	용언 어간 + 용언 어간(연결 어미 생략)

③ **부사**(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말)가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경우
(예) 부슬비, 산들바람, 척척박사, 볼록거울

단원종합문제

01 다음 문장을 단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철수가 밥을 먹다

(1) 단어란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의미하므로 이 문장은 (철수), (), (), (), (먹다)의 5개의 단어로 분석할 수 있다.

↓

(2) 이 중 (), ()은/는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홀로 쓰이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므로 단어로 인정한다.

↓

(3) '먹다'는 ()와/과 ()(으)로 다시 쪼갤 수 있는데, 이렇게 뜻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쪼갠 단위, 즉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이)라고 한다.

* '철수' : '철'과 '수'로 나누면 뜻이 없어지므로 '철수'가 하나의 형태소

↓

(4) 따라서 이 문장은 5개의 단어와,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02 다음은 제시된 문장을 분석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 보자.

어제는 날씨가 좋았다.

(1) 이 문장은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문장은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3) '(,)'은/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다.

(4) '는', '가', '좋-', '-았-', '-다'는 홀로 쓰일 수 없는 () 형태소이다.

(5) '(, ,)'은/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6) '는', '가', '-았-', '-다'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는 () 형태소이다.

03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고,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을 모두 찾아 적어 보자.

① 철수가 피아노를 치고 ② 영희가 노래를 부르자 ③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

04

제시된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분석해 보자.

(1) 민영이는 항상 즐겁게 공부했다.	
단어	
형태소	

⇒ 단어 ()개, 형태소 ()개로 이루어진 문장

(2) 할머니께서 구운 감자를 잡수신다.	
단어	
형태소	

⇒ 단어 ()개, 형태소 ()개로 이루어진 문장

(3) 이미 어르신들께서는 그곳에 도착하셨겠다.	
단어	
형태소	

⇒ 단어 ()개, 형태소 ()개로 이루어진 문장

(4) 사냥꾼이 우물가에서 손을 닦았다.	
단어	
형태소	

⇒ 단어 ()개, 형태소 ()개로 이루어진 문장

05

다음 단어들을 분석한다고 할 때 둘 이상으로 쪼개지는 단어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어로 나누어 보자.

① 집	② 꽃사과	③ 바다	④ 덧신	⑤ 선생님
⑥ 나무	⑦ 장미	⑧ 나무꾼	⑨ 맨손	⑩ 밤낮
⑪ 책가방	⑫ 햇곡식	⑬ 꽃신	⑭ 구름	⑮ 하늘
⑯ 민들레	⑰ 늦더위	⑱ 개살구	⑲ 엄마	⑳ 오늘



둘 이상으로 쪼개지는 단어 (= 복합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어 (= 단일어)

06

다음 단어들을 어근과 접사로 분류하고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해 보자. (*접사가 없으면 빈칸으로 둘 것)

단어		어근	접사
(예) 낮잠		낮, 자-	-ㅁ
① 햇밤			
② 벌판			
③ 살리다			
④ 덧대다			
⑤ 날뛰다			
⑥ 색종이			
⑦ 겁쟁이	→		
⑧ 치뜨다			
⑨ 들기름			
⑩ 지난주			
⑪ 날개			
⑫ 논길			
⑬ 날아가다			
⑭ 가위질			
⑮ 밤나무			

합성어	
파생어	

07

아래의 단어를 파생되는 방식에 따라 ㉠과 ㉡으로 분류하고, ㉡에서 품사가 변한 단어를 찾아 적어 보자.

① 나무꾼	② 맛고소	③ 손님	④ 잠
⑤ 날고기	⑥ 걱정스럽다	⑦ 꽃사랑	⑧ 공부하다
⑨ 잡히다	⑩ 기쁨	⑪ 히죽이	⑫ 군침
⑬ 높다랗다	⑭ 만형	⑮ 높이	⑯ 낮추다
⑰ 애호박	⑱ 짓밟다	⑲ 샛노랗다	⑳ 달리기

㉠ 접두 파생

㉡ 접미 파생

↓

㉢ 품사가 변한 단어

08

아래의 단어를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과 ㉡으로 분류하고, ㉡을 유형에 따라 다시 나누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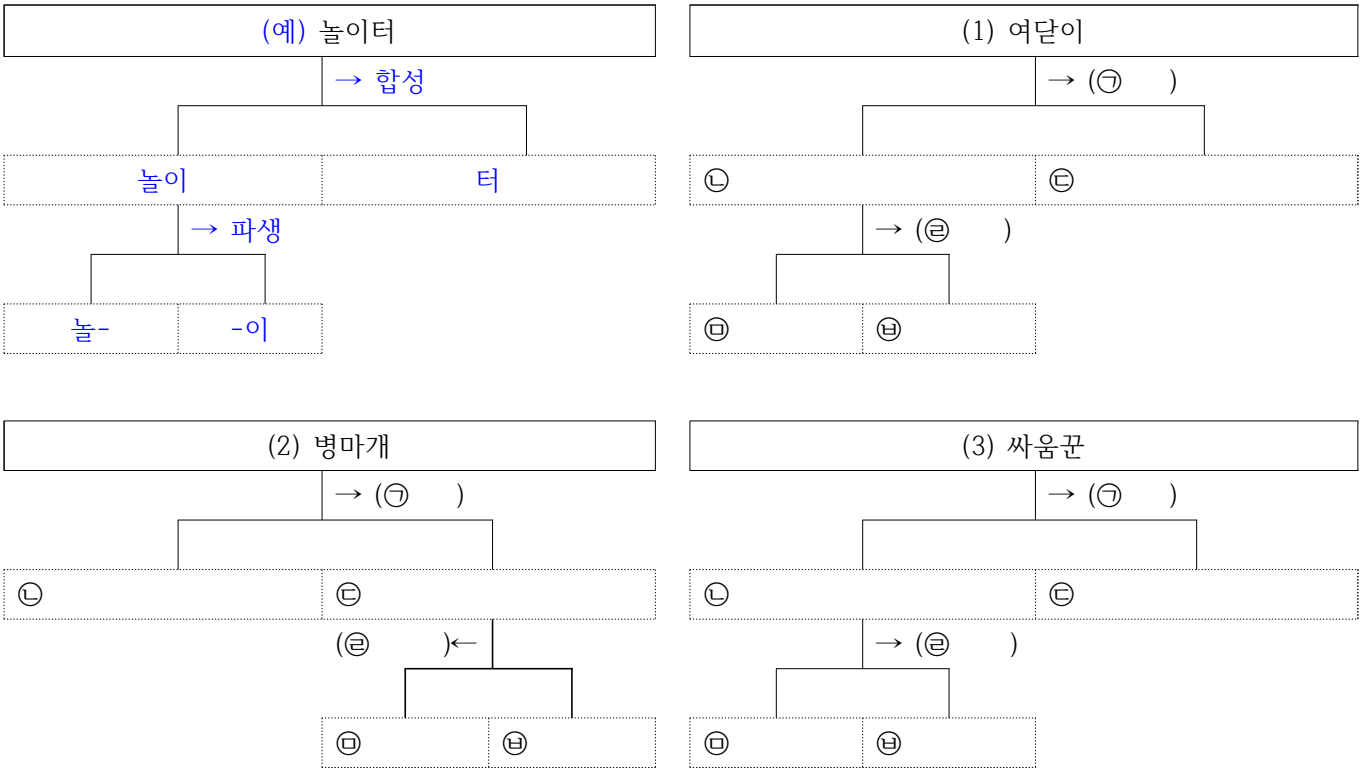
① 논밭	② 첫사랑	③ 오르내리다	④ 늙은이
⑤ 먹거리	⑥ 굶주리다	⑦ 타고나다	⑧ 뛰놀다
⑨ 검붉다	⑩ 검버섯	⑪ 덮밥	⑫ 곤잘
⑬ 굳세다	⑭ 척척박사	⑮ 힘들다	⑯ 새해
⑰ 손수레	⑱ 부슬비	⑲ 접칼	⑳ 산들바람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a) 관형사형 어미 생략	(b) 연결 어미 생략	(c) 부사가 명사를 수식

9

다음은 짜임이 복합적인 단어들을 분석한 것이다. (예)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자.



3. 품사

(1) 품사의 개념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 → 수많은 단어들을 끼리끼리 묶어 놓은 것이므로 그들 간의 '공통된 성질'에 주목하자.

(예) 가방, 우산, 의자 → 사물의 이름이라는 공통된 성질에 따라 <명사>로 묶음

(2) 품사의 분류

① 형태 : 단어의 모습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형태 변화의 유무	불변어 : 단어가 사용될 때, 형태의 변화가 없는 단어
	가변어 : 단어가 사용될 때, 형태의 변화가 있는 단어

(예)				
'집'은 형태가 변하지	←	집에 <u>가</u> 다.	→	'가다'는 형태가 변하니
않으니 <u>불변어</u>		집에 <u>갈</u> 까?		<u>가변어</u>
		집에 <u>갔</u> 어요.		

② 기능 :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문장 에서의 역할	체언 :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 :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동사, 형용사)
	수식언 :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관형사, 부사)
	관계언 :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을 관계 맺어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조사)
	독립언 :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감탄사)

(예)	수식언	용언
우와! <u>철수</u> 가 <u>새</u> 신발을 <u>신</u> 었네.		
독립언	체언	관계언

③ 의미 :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은 의미에 따라 다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9개 품사로 나뉜다. (흔히 사용되는 '명사, 대명사, 동사' 등의 품사명은 '의미'에 따른 분류의 결과이다.)
----	---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을 써 넣어 보자.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해 놓은 갈래를 ‘품사’라고 한다. 품사는 ㉠()이/가 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다시 문장에서의 ㉠()에 따라 다섯 갈래로 나뉘며, 단어들이 지니는 공통된 의미에 따라 아홉 개의 갈래로 나뉜다.

㉠()	㉠()	의미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	조사
가변어	㉠()	동사
		형용사

↳ 조사는 불변어에 속하지만, 서술격 조사(이다)는 가변어에 속함

2 다음 단어들을 가변어와 불변어로 구별해 보자.

① 가다	② 신나다	③ 첫째	④ 바람	⑤ 정말	⑥ 어머니
⑦ 먹다	⑧ 다섯	⑨ 강아지	⑩ 매우	⑪ 아름답다	⑫ 밀치다
⑬ 아이코	⑭ 책상	⑮ 사랑	⑯ 슬프다		

(1) 가변어	
(2) 불변어	

3 다음 문장에서 각 단어들의 품사를 기능에 따라 나누어 보자.

① 와, 새 교과서가 나왔네.
② 어머니! 민희는 항상 부지런하구나!

	①	②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3) 품사의 의미와 특성

①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명사 : 사람, 도시 등 고유 명사 : 김철수, 서울시 등 자립 명사 : 사람, 도시 등 의존 명사(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쓰일 수 있는 명사) : 것, 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칭 대명사 : 나, 너, 우리, 당신 등 지시 대명사 : 이거, 저거, 그거 등(사물), 여기, 저기, 거기 등(처소) <p>→ 대명사는 곧 '명사를 대신함'을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수사 : 하나, 둘, 일(一), 이(二) 등(수량을 가리킴) 서수사 : 첫째, 둘째 등(순서를 가리킴)

② 수식언 : 관형사, 부사

관형사	부사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 (같은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 등을 꾸미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시 관형사 : <u>그</u> 사람, <u>이</u> 사람, <u>저</u> 사람 성상 관형사 : <u>새</u> 신발, <u>흰</u> 신발, <u>모든</u> 신발 수 관형사 : <u>한</u> 친구, <u>두</u> 친구, <u>세</u> 친구 <p>→ 사람, 신발, 친구는 모두 체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상 부사 : <u>빨리</u> 가자, <u>많이</u> 먹어라 → 상태, 성질을 나타냄 지시 부사 : <u>그리</u> 앞아라, <u>저리</u> 가자 → 장소 등을 가리킴 문장 부사 : <u>다행히</u> 비가 오지 않았다. → 문장 전체를 수식 접속 부사 : 나 <u>그리고</u> 너 → '나'와 '너'를 이어 줌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을 써 넣어 보자.

㉠()은/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에 쓰이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 이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으)로 나뉜다.
 수식언은 ㉠을 꾸미는 관형사와, ㉢()을/를 꾸미는 부사로 나뉘는데, 부사는 ㉢ 외에도 같은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 등을 꾸미기도 한다.

2 다음 (예)와 같이 주어진 문장에서 체언을 찾아 밑줄을 긋고 해당하는 품사를 순서대로 적어 보자.

(예) 철수는 밥을 먹고 나갔다. → 명사, 명사

① 셋이서 오솔길을 걸었다. →

② 할아버지께서 밖에 다녀오셨다. →

③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

④ 그래도 손님을 기다릴 것이다. →

⑤ 걱정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

⑥ 우리는 함께 공부를 했다. →

⑦ 저것이 바로 할미꽃이다. →

3 다음 (예)와 같이 주어진 문장에서 수식언을 찾아 그것이 수식하는 단어(품사)를 쓰고 관형사와 부사로 구분해 보자.

- (예) 모든 사람들이 나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다.
- 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 ②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즐겁니?
 - ③ 하늘에 연을 띄우니 생각보다 높이 올라갔다.
 - ④ 새 친구를 사귀고 나서야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 ⑤ 그는 학교까지 아주 빨리 뛰었다.
 - ⑥ 가을이 되니 길가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다.
 - ⑦ 나는 그곳을 지나면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 ⑧ 저 산맥을 거슬러 올라가야 마을이 나타난다.

수식언	수식하는 단어(품사)	관형사/부사
(예) 모든	사람들(명사)	관형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③ 용언 :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동작은 사람의 움직임, 작용은 자연물이나 사물의 움직임)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상태는 '맑다'와 같은 단어, 성질은 '착하다'와 같은 단어를 말함)
<div> <div>자동사 :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예) 철수가 집에 가다.</div> <div>타동사 :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예) 철수가 밥을 먹다.</div> </div>	<div> <div>성상 형용사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예) 착하다</div> <div>지시 형용사 : 성질이나 상태를 지시하는 형용사 (예) 이리하다</div> </div>

<참고>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으로 함께 묶여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품사로 나누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동사	형용사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결합 가능 가(다) + -ㄴ- → 간다 동사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동사의 현재형 가능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결합 불가능 예쁘(다) + -ㄴ- → *예쁘다 형용사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형용사의 현재형 불가능
청유형	청유형 어미 결합 가능 가(다) + -자 → 가자 동사 청유형 어미 동사의 청유형 가능	청유형 어미 결합 불가능 예쁘(다) + -자 → *예쁘자 형용사 청유형 어미 형용사의 청유형 불가능
명령형	명령형 어미 결합 가능 가(다) + -아라 → 가라 동사 명령형 어미 동사의 명령형 가능	명령형 어미 결합 불가능 예쁘(다) + -어라 → *예뻐라 형용사 명령형 어미 형용사의 명령형 불가능

→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작을 표현할 수 있고(현재 시제 가능),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명령형) 함께 하기를 요청(청유형)할 수 있다.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을 써 넣거나 올바른 것을 선택해 보자.

㉠()은/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고, ㉡()은/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두 품사는 모두 문장에서 ㉢()(으)로 쓰여 '용언'이라 불리고, 형태가 ㉣(변한다 /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2 다음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 밑줄을 긋고,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별해 보자.

- ① 아기가 방긋 웃는다.
 ② 영희가 비행기를 탔다.
 ③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④ 철수가 자리에 앉는다.
 ⑤ 형이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동사	
타동사	

3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법에 유의하여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개념을 적고, 다음 단어들을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해 보자.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
동사는 형용사와 달리 ㉠() 시제, 문장에서의 ㉡()형과 ㉢()형이 가능하다.

① 먹다 ② 가다 ③ 아름답다 ④ 착하다 ⑤ 울다 ⑥ 피다
⑦ 잡다 ⑧ 읽다 ⑨ 많다 ⑩ 등글다 ⑪ 웃다 ⑫ 작다
⑬ 따뜻하다 ⑭ 오르다 ⑮ 버리다 ⑯ 없다 ⑰ 느리다 ⑱ 달리다
⑲ 뛰다 ⑳ 숙이다 ㉑ 붉다 ㉒ 깊다 ㉓ 떠오르다 ㉔ 새콤하다
㉕ 빠르다 ㉖ 성실하다 ㉗ 쪼그리다 ㉘ 입다 ㉙ 선명하다 ㉚ (맛이) 쓰다

동사	
형용사	

1 다음 (예)와 같이 주어진 문장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찾아 본용언에는 □ 표시를, 보조 용언에는 △ 표시를 해 보자. 그리고 보조 용언의 경우 보조 동사인지 보조 형용사인지 구별해 보자.

예) 약속한 날짜에 가지 못하였다.
보조 동사

- ① 철저히 조사하게 해.
- ② 너와 함께 학교에 가고 싶어.
- ③ 문법 공부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
- ④ 이 음식 좀 먹어 보아라.
- ⑤ 불을 켜 두고 잠이 들어 버렸어.
- ⑥ 영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내었다.
- ⑦ 진희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 ⑧ 날씨가 더우니 문을 열어 놓아라.
- ⑨ 너의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해.
- ⑩ 친구의 자동차를 수리해 주었어.

<참고> 용언의 불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그 형태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

어간 불규칙 활용	‘ㅅ’ 불규칙	‘ㅅ’ 받침 + 모음 어미 → ‘ㅅ’ 탈락 (예) 짓- + -어 → 지어 (규칙 활용 : 벗- + -어 → 벗어)
	‘ㄷ’ 불규칙	‘ㄷ’ 받침 + 모음 어미 → ‘ㄷ’이 ‘ㄹ’로 교체 (예) 묻- + -어 → 물어 (규칙 활용 : 굳- + -어 → 굳어)
	‘ㅂ’ 불규칙	‘ㅂ’ 받침 + 모음 어미 → ‘ㅂ’이 ‘오/우’로 교체 (예) 돕- + -아 → 도와 (규칙 활용 : 굽- + -어 → 굽어)
	‘ㄹ’ 불규칙	‘ㄹ’ + 모음 어미 → ‘ㄹ’가 ‘ㄹㄹ’로 교체 (예) 흐르- + -어 → 흘러 (규칙 활용 : 치르- + -어 → 치러)
	‘우’ 불규칙	‘우’ + 모음 어미 → ‘우’ 탈락 (예) 푸- + -어 → 퍼 (규칙 활용 : 주- + -어 → 줘)
어미 불규칙 활용	‘여’ 불규칙	‘하-’ + ‘-아/어’ → ‘-아/어’가 ‘여’로 교체 (예) 하- + -어 → 하여 (규칙 활용 : 되- + -어 → 되어) 어간의 ‘-’ 탈락은 규칙 활용
	‘러’ 불규칙	‘르’ + ‘-어’ → ‘-어’가 ‘-러’로 교체 (예) 이르- + -어 → 이르러(=도착하다) (규칙 활용 : 들르- + -어 → 들러)
어간, 어미 불규칙 활용	‘ㅎ’ 불규칙	‘ㅎ’ 받침 + ‘-아/어’ → ‘ㅎ’ 탈락. 어간 모음과 어미 ‘-아/어’가 결합하여 ‘-애/애’로 나타남 (예) 파랗- + -아 → 파래, 하얗- + -아 → 하애 (규칙 활용 : 좋- + -아 → 좋아)

④ 관계언 : 조사

- ㉠ 격 조사 :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특정한 자격을 지니도록 만들어주는 조사. (예) 주격 조사 ‘이/가, 께서’, 목적격 조사 ‘을/를’, 관형격 조사 ‘의’, 부사격 조사 ‘에서, 예, 에게’, 서술격 조사 ‘이다’, 보격 조사 ‘이/가’, 호격 조사 ‘아, 야, 이여’ 등
- ㉡ 보조사 :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예) ‘은/는, 만, 도, 뿐, 이나’ 등
- ㉢ 접속 조사 : 두 단어를 이어 주는 조사 (예) ‘와/과, 이랑, 하고’ 등

1 다음 불규칙 용언이 일반 규칙 활용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불규칙성)가 일어나는지 적어 보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변화 양상
(예) 신발을 벗어 보아라.	말을 이어 보아라.	‘ㅅ’ 탈락
빵이 굶어 보였다.	네 말을 들어 보자.	㉠
허리가 굶어 있었다.	자리에 누워 있었다.	㉡
많은 일을 치러 왔다.	바다까지 흘러 왔다.	㉢
일이 잘 되어 간다.	열심히 하여 이뤘다.	㉣
가게에 들리 보렴.	항상 푸르려 있었다.	㉤

2 다음 문장에서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 부분을 찾아 적어 보자.

종이에 줄을 그어 가며 노는 아기의 표정이 해맑았다. 누르러만 가는 저녁 하늘 아래 사람들은 더워서 발길을 서두르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이러한 풍경을 감상하였다.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 부분	
-------------------	--

3 다음 문장에 나타난 격 조사를 아래에 모두 분류해 보자.

- ① 어머니께서 밥솥에 밥을 안치셨다.
- ② 그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나의 형님이다.
- ③ 철수야, 네가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구나!

주격 조사 :

목적격 조사 :

서술격 조사 :

관형격 조사 :

부사격 조사 :

보격 조사 :

호격 조사 :

4 다음 문장에서 조사를 모두 찾아 밑줄을 긋고, 격 조사와 보조사, 접속 조사로 구별해 보자.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둘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토끼만 빨리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격 조사 :

보조사 :

접속 조사 :

⑤ 독립언 : 감탄사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

(예) 앗! 이게 무슨 일이니?(놀람) / 어머나, 생일선물이구나!(느낌) / 여보세요, 거기 민희네 집이지요?(부름)
/ 네, 부르셨어요?(대답)

(4) 품사 *통용 *두루 통하여 쓰임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

명사 / 관형사 통용	(예) 철수는 객관적 으로 판단했다(명사) / 그것은 객관적 판단이다(관형사)	* '조사'의 결합 가능 여부로 구분 →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체언!
명사 / 부사 통용	(예) 내일 이 내 생일이다(명사) /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하자(부사)	
명사 / 조사 통용	(예) 참을 만큼 만 참겠다((의존) 명사) / 너 만큼 착한 사람은 못 봤다(조사)	
명사 / 감탄사 통용	(예) 앞장서서 만세 를 부르다(명사) / 만세! 드디어 해방이다!(감탄사)	
수사 / 관형사 통용	(예) 다섯 을 세고 뒤를 돌아라(수사) / 다섯 사람이 길을 간다(관형사)	
동사 / 형용사 통용	(예) 벌써 날이 밝아 온다(동사) /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형용사)	

(5) 품사 분류의 실제

문장		그래, 먼저 저기에서 노는 모든 친구와 빨리 인사하자.									
단어		그래	먼저	저기	에서	노는	모든	친구	와	빨리	인사하 자
품사	의미	감탄사	부사	대명사	조사	동사	관형사	명사	조사	부사	동사
	기능	독립언	수식언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체언	관계언	수식언	용언
	형태	불변어	불변어	불변어	불변어	가변어	불변어	불변어	불변어	불변어	가변어

1 다음 문장에서 감탄사를 모두 찾아서 적어 보자.

- ① 어머나, 아름이가 밥을 많이 먹는구나!
- ② 네, 선생님. 저는 7반의 회장 김철수입니다.
- ③ 여보세요? 제가 무엇을 도와 드리면 될까요?
- ④ 앗! 지금 할머니 댁에서 오는 길이니?
- ⑤ 야,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 ⑥ 지금 그 말이 사실이니? 세상에나!

2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가 각각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적어 보자.

문장	품사
① 이거 진짜 큰일 났네, <u>정말</u> !	
② 이건 <u>정말</u> 이야, 농담이 아니라고.	
③ 할머니께서는 자녀를 <u>일곱</u> 을 낳으셨다.	
④ 할머니께서는 <u>일곱</u> 자녀가 있으시다.	
⑤ 키가 몰라보게 <u>쫘</u> 구나.	
⑥ 가구가 <u>커서</u>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⑦ 이 현상은 <u>일반적</u> 상식에 맞지 않는다.	
⑧ 이 기종이 <u>일반적</u> 으로 많이 사용된다.	

3 다음을 참고하여 주어진 문장을 단어로 분석하고, 각 단어의 품사를 순서대로 적어 보자.

단어	선민이 / 가 / 학교 / 에 / 빨리 / 도착했다
품사	(명사) (조사)(명사) (조사)(부사) (동사)

단어	① 와, 아침의 햇살이 참 밝다.
품사	
단어	② 셋째, 영희는 이곳을 스스로 청소해라.
품사	
단어	③ 헌 필통을 새 필통으로 바꾸었다.
품사	
단어	④ 우리 할머니께서는 항상 인자하시다.
품사	
단어	⑤ 예구머니나, 이것도 개구리 아니니?
품사	
단어	⑥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품사	
단어	⑦ 나의 친구 승민이는 아주 착하다.
품사	
단어	⑧ 선생님! 저는 교무실로 먼저 가겠습니다.
품사	

단원종합문제

1 <보기>의 ㉠ ~ ㉣이 지시하는 대상을 모두 찾아 적어 보자.

| 보 기 |

승민 : 태욱아, ㉠ 저 사람 혹시 민서 아니야?

태욱 : 어 정말? 민서 맞네. (민서를 향해) 민서야!

민서 : (다가오며) 오랜만이야. 어디 가는 길이야?

승민 : 자전거 타러 공원 가고 있어. ㉡ 그건 뭐니?

민서 : 응, 준비물이야. ㉢ 인제 만나 모르겠네.

태욱 : ㉣ 저기에도 문방구가 있으니 둘러봐.

민서 : 우체국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거니?

지시하는 대상	㉠	㉡	㉢	㉣

2 ㉠과 ㉡을 참고하여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찾아 그 품사를 적어 보자.

㉠	㉡
날씨가 맑다.	날씨가 맑니?
철수가 밥을 먹다.	철수가 밥을 먹었더라.
영희는 학생이다.	영희는 학생입니다.

→ 형태가 변한 단어는 _____ 이다.

이 단어들의 품사는 각각 _____ 이다.

3 아래는 조사와 관련하여 <보기>의 예문을 분석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 보자.

| 보 기 |

(1) 철수가 밥을 먹었다.

(2) ㄱ. 철수가 밥을 먹었다.

ㄴ. 철수만 밥을 먹었다.

(3) ㄱ. 너와 내가 함께 가자.

ㄴ. 너랑 내가 함께 가자.



조사는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을/를 맺어 주는 품사이다. (1)의 ‘가’와 ‘을’은 ‘철수’와 ‘밥’이 각각 문장에서 주어와 (㉡)의 (㉢)을/를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격 조사’이다. 반면 (2)의 ‘만’은 격 조사가 아닌 (㉣)(으)로, ‘단독’과 같은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조사에는 이밖에도 (3)의 ‘와’, ‘랑’과 같은 (㉤) 조사도 있다.

4 제시된 조사를 활용하여 아래의 문장을 완성하고, 격 조사의 종류를 파악해 보자.

이/가, 을/를, 의, 예, 에서, 에게, 이다	
↓	
문장 완성	격 조사의 종류
(1) 철수() 땀다.	
(2) 우리는 운동장() 모였다.	
(3) 그것은 아버지() 신발이다.	
(4) 민수가 나() 말했다.	
(5) 집() 종일 쉬었다.	
(6) 영희가 밥() 먹는다.	
(7) 오늘은 개교기념일().	

5 다음 문장에서 보조 용언을 찾아 밑줄을 긋고,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구별해 보자.

현주가 찾아온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서 보니까 현주가 보였다. 나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방에서 서성이고 있는 나에게 왜 나오지 않느냐고 어머니가 물으셨다. 나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 얼른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 버렸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주의 속내를 알 수가 없었다.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6 (예)와 같이 용언의 활용형을 써보고 이에 따라 제시된 단어를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해 보자.

단어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	동사/형용사
(예) 가다	간다	가자	가라	동사
① 먹다				
② 맑다				
③ 놀다				
④ 여리다				
⑤ 뜨겁다				
⑥ 던지다				
⑦ 착하다				
⑧ 찢다				
⑨ 아름답다				
⑩ 푸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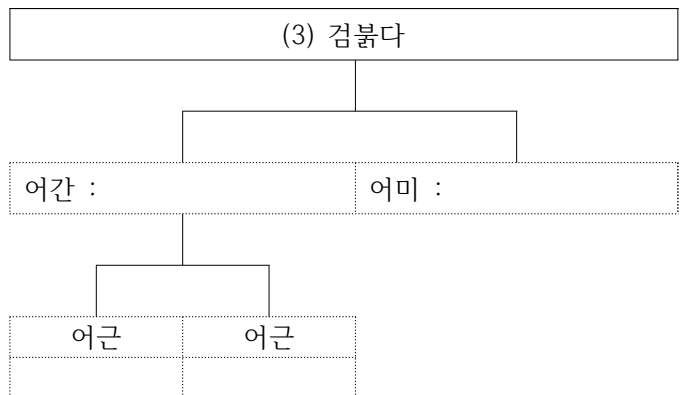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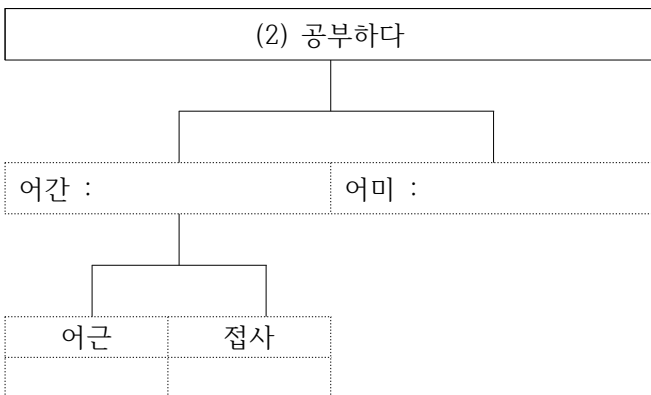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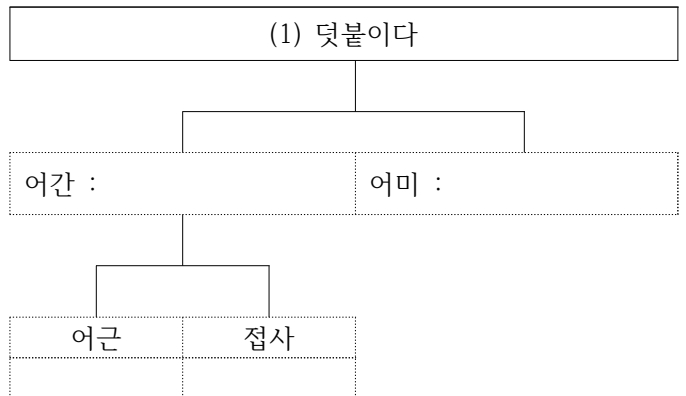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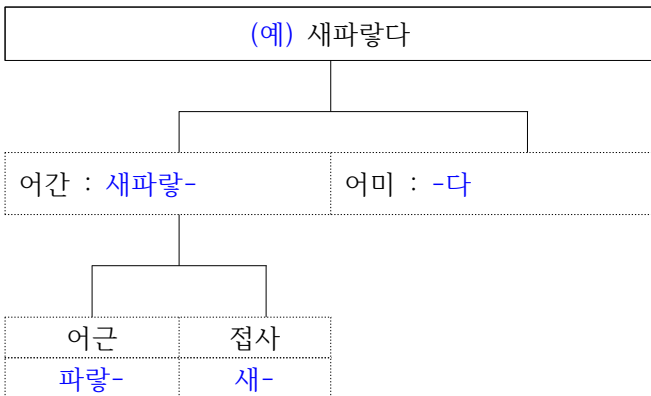
7 규칙 활용을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들을 불규칙 활용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자.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
① 공부를 열심히 <u>하</u> 였다.	밥을 <u>먹</u> 었다.
② 어머니께서 빵을 <u>구</u> 웠다.	길이 <u>굽</u> 었다.
③ 물이 <u>흘</u> 러 강가에 다다랐다.	일을 <u>치</u> 렀다.
④ 친구에게 모르는 것을 <u>물</u> 었다.	보물을 <u>묻</u> 었다.
⑤ 그는 독특한 건축물을 <u>지</u> 었다.	손을 <u>씻</u> 었다.
⑥ 곧 약속한 장소에 <u>이르</u> 렀다.	가게에 <u>들</u> 렀다.

‘ㅅ’ 불규칙 활용		‘르’ 불규칙 활용	
‘ㄷ’ 불규칙 활용		‘여’ 불규칙 활용	
‘ㅂ’ 불규칙 활용		‘리’ 불규칙 활용	

8 다음 설명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아래의 단어를 (예)와 같이 분석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간’과 ‘어미’는 단어가 활용할 때 쓰는 개념 : 형태가 변하는 부분은 (㉠),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다. ○ ‘어근’과 ‘접사’는 단어의 짜임과 관련된 개념 : 중심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은 (㉢), 주변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은 (㉣)이다.
--



9 다음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찾고, 꾸며 주는 말을 관형사와 부사로 구별해 보자.

(예) 수현이는 밥을 빨리 먹는다.

① 철수가 저 춤을 따라 출 것이다.

③ 너는 어떤 것이 마음에 드니?

⑤ 시간이 늦어서 숙제를 못 했어요.

⑦ 일기장을 보고 옛 생각에 잠기었다.

② 온갖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

④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간다.

⑥ 시험공부를 하느라 몹시 피곤했다.

⑧ 저 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

꾸며 주는 말	꾸밈을 받는 말(품사)	관형사/부사
(예) 빨리	먹는다(동사)	부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다음 문장의 각 단어들에 해당하는 품사를 적어 보자.

(1) 오늘은 날씨가 매우 흐리다.

단어						
품사						

(2) 드디어 나는 외투 하나를 찾았다.

단어						
품사						

(3)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걸었다.

단어						
품사						

(4) 세상에, 새 가방이 무척 예쁘구나.

단어						
품사						

(5) 철수야, 나랑 같이 가자.

단어						
품사						

11 다음은 품사 통용이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를 적어 보자.

(예)	이 제품은 <u>일반적</u> 으로 비싸다.	→ 명사
	<u>일반적</u>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관형사
(1)	떡이 <u>굳어서</u> 먹을 수가 없다.	→
	어린 소년인데도 의지가 참 <u>굳군</u> .	→
(2)	애야, 먹을 <u>만큼만</u> 가져 오렴.	→
	내 친구 <u>만큼</u> 은 그럴 리 없다.	→
(3)	그 일은 <u>모두</u> 에게 책임이 있다.	→
	그릇에 담긴 소금을 <u>모두</u> 쏟았다.	→
(4)	<u>다섯</u>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
	사람 <u>다섯</u> 이 모여 청소를 했다.	→
(5)	<u>만세!</u> 꿈에 그리던 고향에 간다!	→
	다 같이 모여 <u>만세</u> 를 불렀다.	→

호랑이쌤 생존국어



3 한국 문학의 흐름(문학)

01 고전 시가

02 고전 소설

시조 01. 망국의 정

(가) 興亡(흥망)이 有數(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 | 로다.

五百年(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는 客(객)이 눈물계워 흐노라.

(나) 五百年(오백 년) 都邑地(도읍지)를 匹馬(필마)로 도라드니,

山川(산천)은 依舊(의구)히되 人傑(인걸)은 간 디 업다.

어즈버, 太平烟月(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흐노라.

(다) 仙人橋(선인교) 나린 물이 紫霞洞(자하동)에 흘러 드리,

半千年(반천 년) 王業(왕업)이 물소리 쉼이로다.

아희야, 故國興亡(고국 흥망)을 무려 무엇히리오.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다) 모두 회고(懷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② (가)~(다) 모두 특정한 왕조를 의미하는 시어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나)는 대조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다)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⑤ (나)와 (다)에는 무상감을 상징하는 시어가 드러나 있다.

2 (가)와 (나)의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 ① 비육지탄(髀肉之嘆) ② 망양지탄(亡羊之歎)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⑤ 만시지탄(晩時之歎)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 ㉠ a 축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b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 c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상징한다. d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짐작하게 한다.

-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4. 망국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면에서 (가), (나)의 시적 화자와 (다)의 시적 화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시조 02. 지조와 절개

(가)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소 하니,

蓬萊山(봉래산) 第一峯(제일봉)에 落落長松(낙락장송) 되야 이서,

白雪(백설)이 萬乾坤(만건곤)을 제 獨也靑靑(독야청청)히리라.

(나)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薺(이제)를 恨(한)히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히는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싸헤 낫드니.

(다) 風霜(풍상)이 섰거 친 날에 곱 피온 黃菊花(황국화)를

金盆(금분)에 그득 담아 玉堂(옥당)에 보니오니,

桃李(도리)야, 곱이온 양 마라, ㉠님의 뜻을 알괘라.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작품 표면에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는 가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특정한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시적 화자가 겪는 시련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 (가)의 종장에서 작가가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직유법 ② 반어법 ③ 설의법 ④ 대조법 ⑤ 대구법

3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p>주려 주그려 흥고 首陽山(수양산)에 드럿거니 현마 고사리를 머그려 키야시라 物性(물성)이 구븐 줄 애다라 펴 보려고 키미라.</p>	<p><보기> - 주의식</p>
--	---

- ① (나)와 <보기>는 모두 동일한 고사를 소재로 삼고 있군.
- ② <보기>는 (나)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보기>와 달리, (나)에서는 중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군.
- ④ (나)와 달리, <보기>에서는 고사리자체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군.
- ⑤ (나)와 달리, <보기>에서는 절개를 지키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4 (나)에서 시적 화자가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는 의도를 추리하여 쓰시오.

5 (다)의 ㉠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시조 03. 강호가도(江湖歌道)

(가) 秋江(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찬노매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無心(무심)흔 들빛만 싹고 뵈 빈 비 저어 오노미라.

(나)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ㅣ로다.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조 업슨 明月(명월)이라.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다)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여 草廬三間(초려 삼간) 지여 내니,

나 흔 간 들 흔 간에 淸風(청풍) 흔 간 맞져 두고,

江山(강산)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1 (가)~(다)의 시적 화자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며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자연 속에서 인간이 본받아야 할 교훈을 찾고 있다.
- ④ 자연 속에서도 학문 탐구와 인격 수양에 힘쓰고 있다.
- ⑤ 자연을 현실 복귀를 위한 일시적 거처로 생각하고 있다.

2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남으로 창을 내겠소. / 밭이 한참 같이 / 팽이로 파고 /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 강냉이가 익결랑 / 함
께 와 자셔도 좋소. // 왜 사냐건 / 웃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① (나)와 <보기>는 모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와 <보기>에는 모두 삶에 대한 달관이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보기>의 시적 화자는 모두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있다.
- ④ (나)와 <보기>에는 모두 시적 화자의 삶의 방식이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 있다.
- ⑤ (나)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보기>는 각운의 사용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3 (다)의 주제를 '물아일체(物我一體)'라고 할 때, '물(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 현대어로 쓰시오.

4 (다)에 나타난 시선 이동의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위 → 아래 ② 아래 → 위 ③ 뒤쪽 → 앞쪽
- ④ 가까운 곳 → 먼 곳 ⑤ 먼 곳 → 가까운 곳

시조 04. 그리움

(가) ㉠冬至(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나) ㉡뫼뵈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논 窓(창) 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다) 梨花雨(이화우) 훗썩릴 제 울며 잡고 離別(이별)헌 님,

秋風落葉(추풍 낙엽)에 저도 날 싱각논가.

千里(천 리)에 외로온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1 (가)~(다)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여성적 어조가 드러난다. ②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난다.
- ③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④ 시적 화자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2 (가)의 ㉠과 유사한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 ① 梧桐(오동)에 들는 빗발 無心(무심)히 들건마는
너 시름 하니 넉넉히 愁聲(수성)이로다.
이 後(후)야 입 넉은 남기야 시물 줄이 이시랴.
- ② 大鵬(대붕)을 손으로 잡아 번갯불에 구워 먹고
崑崙山(곤륜산) 옆에 끼고 북해를 건너 뛰니
태산이 발끝에 차이어 왜각데각 하더라.
- ③ 田園(전원)에 나쁜 興(흥)을 전나귀에 모도 짓고
溪山(계산) 나쁜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희 琴書(금서)를 다스려라 나쁜 희를 보내리라.
- ④ 頭流山(두류산) 兩端水(양단수)를 네 듯고 이제 보니.
桃花(도화) 쓴 물은 물에 山影(산영)조춌 잠겼세라.
아희야, 武陵(무릉)이 어디오, 나는 연가 흥노라.
- ⑤ 어리고 성권 梅花(매화) 너를 밋지 아녔더니,
눈 期約(기약) 能(능)히 직혀 두세 송이 뿔엇고나.
燭(촉) 줍고 갓가이 스랑힐 제 暗香(암향)조춌 浮動(부동)터라.

3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시적 화자가 임의 심정을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하강의 이미지를 담은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⑤ 시적 화자가 이별의 책임을 임에게 전가하고 있다.

4 (나)의 ㉡의 시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시조 05. 유교적 이념

(가)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아

고국 산천(故國山川)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常)하니 올동 말동 하여라.

(나) 청강(靑江)에 ㉡비 듣는 소리 그 무어시 우읍관디

㉢만산 홍록(滿山紅綠)이 휘드르며 웃는고야

두어라, ㉣춘풍(春風)이 몇 날이리 우을 디로 우어라

(다) ㉤국화야, 너난 어이 삼월 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대상물에 긍정적인 관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상황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2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섭 : (가)와 (나)는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 ② 수연 : (가)와 (나) 모두 비분강개하는 화자의 한 서린 목소리가 드러나.
- ③ 민준 : (가)와 (나) 모두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비유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
- ④ 희선 : (가)는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나)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어.
- ⑤ 우석 : (나)에 비해 (가)가 화자의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3 ㉠~㉣ 중, ㉠과 그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 다음을 참고하여, (가)의 종장에 담겨 있는 화자의 심경을 서술하시오.

(가)는 병자호란 때 예조 판서로 척화 향전을 주장하던 김상헌이 패전 후 청으로 끌려가며 지은 것이다.

5 ‘국화’에 주목하여 (다)와 <보기>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풍상(風霜)이 섰거친 나레 갓 피은 황국화(黃菊花)를
금분(金盆)에 가득 다마 옥당(玉堂)에 보내오니,
도리(桃李)야 꽃이온양 마라, 님의 뜻을 알래라.

<보기>

- 송순

시조 6. 평민들의 사랑

(가) 님이 오마 허거늘 저녁 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
논가 가논가 건넌 산(山) 바라보니 거머빻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
서 손에 쥐고 곰빅 님빅 님빅 곰빅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존 디 므른 디 굴희지 말고 워령충창 건
너가셔 정(情)옛말 허려 하고 겹눈을 흘깃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골가 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도 날 소겨거다

모쳐라 밤일식망정 형혀 낮이런들 늬 우일 번허패라.

(나) 어이 못 오던다 무슴 일로 못 오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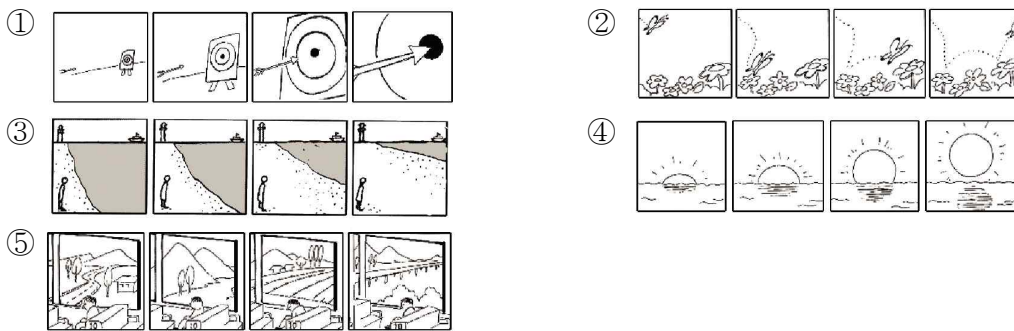
너 오논 길 우희 무쇠로 성(城)을 뺏고 성(城) 안헤 담 뺏고 담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헤란 두
지 노코 두지 안헤 궤(櫃)를 노코 궤(櫃) 안헤 너를 결박(結縛)하여 노코 쌍(雙)비목 외걸새에 용
[A]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줍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헌 둘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흘리 업스랴.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연쇄적 진술을 통해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 ③ (나)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 ④ (가)는 자유로운 율격이, (나)는 정형적인 율격이 느껴진다.
- ⑤ (가)는 화자의 실제 행동을, (나)는 화자가 가정한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2 [A]의 시상 전개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 (가)에서 화자가 임으로 착각하는 소재를 찾아 2어절로 쓰시오.

4 <보기>와 (나)를 대비하여 정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보기>

막음이 어린 후(後) | 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 운산(萬重雲山)에 어넉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형여 권가 흐노라.

시조 7. 풍자와 해학

(가) 개야미 불개야미 존등 쪽 부러진 불개야미

앞발에 정종 나고 뒷발에 종괴 난 불개야미 廣陵(광릉) 심재 너머 드리 가람의 허
리를 ㅅ로물어 추혀들고 北海(북해)를 건넌단 말이 이셔이다 님아 님아
온 놈이 온 말을 ㅎ여도 님이 짐작ㅎ소서.

(나) 댁(宅)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랴 왜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
(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스측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하렘은.

(다) 불가버슨 아해(兒孩)ㅣ 들리 거믹줄 테를 들고 ㅅ천(川)으로 왕래(往來)ㅎ며,

불가송아 불가송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부로나니 불가송이
로다.
아마도 세상(世上) 일이 다 이러ㅎ는가 ㅎ노라.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생활 속의 소재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형식상 우아하고 절제된 기품과 균형을 강조한다.
- ③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시적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진솔한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

2 (가)의 시적 화자(A)와 (다)의 시적 화자(B)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전 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당신이 바라보는 세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요.
- ② B : ‘불가버슨 아해’를 통해 모해하는 자와 그 세태를 풍자하려고 했는데, 당신 작품에서는 ‘개야미’가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 ③ A : 당신의 작품에는 내 작품과 달리 당부가 드러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 ④ B : 당신은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였지만 제 작품에는 청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 ⑤ A : 그러고 보니 확장과 극단적 과장도 제 작품에서만 나타나네요.

3 (나)의 ‘동난지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4 (다)의 ‘불가승이’와 <보기>의 제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법의 명칭을 쓰고, 이와 관련하여 ‘불가승이’의 의미를 쓰시오.

<보기>

등산도 하지 않고 / 땀 한번 안 흘리고
 내 속에서 마주치는 / 한계령 바람소리 //
 다 불어 버려 / 갈 곳이 없다 /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한다
 언몸 그대로 눈보라 속에 놓인다.

- 천양희, ‘한계’ 중

호랑이쌤 생존국어



3 한국 문학의 흐름

01 고전 시가

02 고전 소설

고전소설 01. 작자미상, 유충렬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기출)

(가)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자에게 여쭙오되,

“폐하 즉위하신 후에 은덕이 온 백성에게 미치고 위엄이 온세상에 진동하여 열국 제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번과 가달이 강포함만 믿고 천명을 거스르니, 신 등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남적을 항복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천자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근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희 왈,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하시니라.

이때 유 주부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천자 앞에 들어가 엎드려 주왈,

“듣사오니 폐하께옵서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단 말씀이 옳으니까?”

천자 왈,

“한담의 말이 여차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주부 여쭙오되,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침이라. 한날 새알이 천 근의 무게를 견디리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 리 사장(沙場)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인들 아니 적악(積惡)이리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기병치 마옵소서.”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담과 일귀 일시에 합주하되,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니, 오국 간신과 같은 무리로소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 무리를 대국에 비하고 한날 새알을 폐하에게 비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만고의 역적이라. 신 등은 저어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용이 된 듯하니 유심의 목을 먼저 베고 가달을 치사이다.”

천자가 허락하니,

한림 학사 왕공렬이 유심 죽인단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왈,

“주부 유심은 선황제 개국 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위인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직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에 당연하옵거늘, 그 말을 죄라 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 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제사 지낼 때에 무슨 면목으로 보오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하 없사울 것이니, 황상은 생각하와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자 이 말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한담이 여쭙오되,

“유심을 죄하실진대 만 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나 공신의 후예이오니, 죄목대로 다 못하오나 정배나 하사이다.”

천자

“옳다.” / 하시고,

“황성 밖에 멀리 유배 보내라.”

[중간 줄거리]

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씨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번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왈,

“이게 웬 변이냐?”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삐 올라 산호 채찍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왈,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 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라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 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얼른 지나 번수 가에 다다르니,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하거늘, 원수 이때를 당하매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에 지를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에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삼십삼천 어린 조화 이때에 다 부리니, 원수 단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리오. 온몸이 불빛 되어 벽력같이 소리하며 왈,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리에 나는 김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江神河伯)도 났을 잃어 용납지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인들 성할쏘냐. 호통 소리 지나는 곳에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먹먹하여 탔던 말 둘러 타고 도망하여 가려다가, 형산마 거꾸러져 백사장에 떨어지니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거늘, 구만 청천 구름 속에 번개칼이 번쩍 하며 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지니,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 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엎드리니, 이때 천자 백사장에 엎어져서 반생반사 기절하여 누워 있거늘, 원수 붙잡아 앉히고 정신을 진정한 후에 엎드려 주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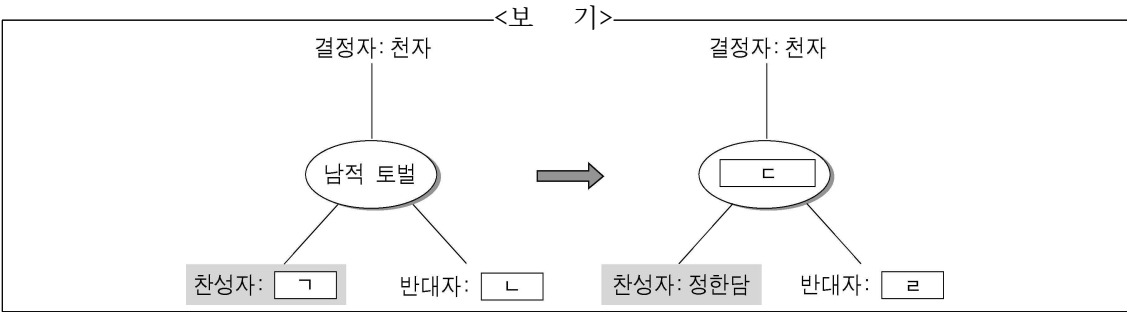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이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1. (가)와 (나)를 대비할 때,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가)	(나)
①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②	사건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배경이 되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	배경이 되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⑤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주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을 드러낸다.

2. (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ㄱ~ㄴ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ㄱ | ㄴ | ㄷ | ㄹ |
|-------|-----|-------|-----|
| ① 유심 | 정한담 | 유심 처벌 | 왕공렬 |
| ② 유심 | 정한담 | 사당 참배 | 최일귀 |
| ③ 정한담 | 유심 | 유심 처벌 | 왕공렬 |
| ④ 정한담 | 유심 | 사당 참배 | 왕공렬 |
| ⑤ 정한담 | 유심 | 조공 징수 | 최일귀 |

3.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삽화를 그리려고 한다. <보기>에서 (나)의 내용을 잘 반영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유충렬이 천기를 살펴보는 호산대의 배경을 밝고 명량한 분위기로 표현하여 앞으로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도록 한다.

ㄴ. 쓰러져 있는 천자에게서 무력함 또는 나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ㄷ. 정한담을 향해 달려가는 천사마는 역동적이면서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그린다.

ㄹ. 장성검을 들고 진격하는 유충렬의 모습에서 천자를 구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이도록 한다.

ㅁ. 달려오는 유충렬을 보고 도망가는 정한담의 표정에서 여유와 의연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린다.

- | | | |
|-----------|-----------|-----------|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 |

4. (가)를 고려할 때, (나)의 ‘천자’의 처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점]

- 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군.
- ② 목마른 놈이 샘 판다더니.
- ③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 ④ 되로 주고 말로 받았군.
- ⑤ 그 나물에 그 밥이네.

☑ 핵심 정리

갈래 국문 소설,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적강 소설

성격 전기적, 비현실적, 영웅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중국 명나라 시대, 명나라 조정과 중국 대륙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 행적

특징 · 영웅 소설의 전형적 요소를 갖추
· 천상계와 지상계로 이원적 공간이 설정됨
·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함

의의 영웅 소설의 유형적 구조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

◇ 이해와 감상

‘유충렬전’은 ‘조웅전’과 함께 조선 후기 영웅 소설과 군담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천상계의 신선이었던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으로 적강하여 간신의 모해와 반역으로 위기에 처하지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가문과 국가를 구출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내용 전개는 ‘주몽 신화’에서 비롯된 영웅 서사 구조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부친(유심)의 누명으로 신분이 하락한 주인공(유충렬)이 전란에 공을 세워 신분이 상승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삶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보여 주는데, 이는 충신과 간신이 대립하고 충신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설정을 통하여 조선 시대의 충신상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무능한 왕권에 대한 규탄과 역경에 처한 왕가의 비굴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현실에서 실세(失勢)한 계층이 자신의 지위를 다시 만회해 보려는 꿈을 투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유충렬이 호국(胡國)을 정벌하고 통쾌한 설욕을 하는 장면은 병자호란 이후 생긴 민중들의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품구조

- ① 유충렬은 부귀를 누리는 유심의 아들이다.
- ② 유심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산신에게 빌어서 얻은 외아들이다.
- ③ 유충렬은 天上 仙官의 하강이며 비범한 기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 ④ 아버지는 간신 정한담을 규탄하다가 귀양갔고, 간신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다가 어머니를 잃고 도적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
- ⑤ 물에 빠졌으나 바위에 올라 살아나고 남경 장사들이 구출했다. 강승상의 집에 화를 피하고 강 소저와 결혼한다. 산으로 몸을 피해 들어가 도승을 만나 무술을 익히고 무기도 얻는다.
- ⑥ 정한담이 외적과 함께 난을 일으켜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 ⑦ 정한담을 죽이고 외적을 물리쳐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했다. 부모와 강 승상, 강소저를 다시 만났으며 고귀한 지위에 올라 부귀를 누렸다.

고전소설 02.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토번국이 당나라를 침공하니,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간다. 양 원수가 전장에서 잠깐 조는데, 꿈에 동정호(洞庭湖) 용왕의 작은딸 백능파를 만난다. 양 원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자, 남해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양 원수와 싸운다. 양 원수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여 싸움에서 이긴다.

홀연 보니 동남쪽에서 붉은 기운과 안개 자욱이 끼며 용궁 사신 행렬의 깃발이 공중에서 날아오며 사자(使者) 내달아 아뢰되,

“동정호 용왕이 원수의 남해 태자 깨침과 공주 구하심을 듣고 친히 궁전에서 축하하려 한대 스스로 맡은 땅에서 경계를 넘지 못하는 고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삼가 원수를 청하여 욕되시더라도 잠깐 임하시게 하시고 겸하여 공주를 궁중에 돌아오시게 하시더이다.”

원수 왈,

“내 바야흐로 대군을 거느려 적군과 마주하고 있고 동정호가 여기서 만 리 밖이라 비록 가고자 한들 어이 얻으리오.”

사자 왈,

“이미 수레를 갖추어 여덟 용이 끌고 있으니 반나절만 하면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양 원수 용녀와 더불어 함께 수레를 타니 신령한 바람이 수레바퀴에 불어 공중에 오르니 이미 인간 세상에서 몇 천 리를 떠난 줄 알지 못하되 다만 흰 구름이 세계를 덮은 양을 볼러라. 잠깐 사이 동정호에 다다르니 용왕이 맞아 주인과 손님의 예법과 위용이 자못 엄숙하더라.

왕이 수중 종족을 모으고 큰 잔치를 차려 원수가 싸움 이기고 용녀가 집에 돌아옴을 축하할새, 술이 취하매 온갖 음악을 내니 풍류 질탕하여 인간 세상과 다르더라.

원수 보니 앞뜰 좌우에 일천 장사 칼과 창을 들고 북 치고 나오고 여섯 줄의 미녀가 비단옷을 입고 춤추니 웅장하고 화려하여 자못 봄 직하더라.

용왕더러 묻되,

“이 춤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배라. 아지 못게라, 이 무슨 곡조니이까.”

용왕 왈,

“이 곡조는 용궁에도 옛날에는 없더니 과인의 만딸이 경하강(涇河江)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욕을 당하매 유의(柳毅)*가 편지로 전하거늘, 전당강(錢塘江)에 사는 아우가 경하강에 가 싸움해 이기고 여아를 데려오니 궁중 사람이 글을 만들어 전당 파진악(錢塘破陣樂)과 귀주 환궁악(貴主還宮樂)이라 하여 이따금 궁중 잔치에 쓰더니, 이제 원수께서 남해 태자를 이기고 부녀 서로 모임이 전일과 방불할새 이 곡조를 내고 이름을 고쳐 원수 파진악(元帥破陣樂)이라 하나이다.”

원수 크게 기뻐 왕께 사뢰되,

“유 선생이 어디 있나니이까. 가히 서로 볼 수 있으리까.”

용왕 왈,

“유씨는 지금 영주의 신선 벼슬을 맡고 있으니 마음대로 오지 못하리이다.”

술잔이 아홉 번 도니 원수 왈,

“군중(軍中)에 일이 많으니 한가히 머물지 못하리로소이다.”

용녀와 더불어 훗날을 기약하더라.

용왕이 원수를 궐문 밖에 가 보내더니 원수 문득 눈을 들어 보니 한 뼘 높고 빼어나 다섯 봉이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더러 묻되,

“이 뼘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니이까. 이 양소유 천하를 두루 다녔으되 오직 화산(華山)과 이 뼘을 못 보았나이다.”

용왕이 답하여 이르기를,

“원수 이 뼘을 모르시리이다. 이 곧 남악(南嶽) 형산(衡山)이니이다.”

원수 왈,

“어이 하면 저 죄를 보리이까.”

용왕 왈,

“날이 아직 늦지 아녔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갈 수 있으리이다.”

원수 수레에 오르니 금방 뵈 아래 이르렀더라. 원수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 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거뵈 흐르는 절경이지만, 볼 겨를이 없는지라, 한탄하여 가로되,

㉠ “어느 날 공적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 들리거늘 절 문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쫓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으되 그 규모가 극히 장려하고 노승이 당 위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빼어나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와 원수를 맞으며 왈,

“산 속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여 멀리서 맞지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 이번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으니, 불전 위에 올라가 예배하소서.”

원수 분향 예배하고 불전 아래로 내리더니 문득 실족하여 엎어져 놀라 깨달으니 몸은 영중(營中)의 높은 의자에 기대고 있고 날은 이미 밝았더라.

원수 장졸을 모으고 문 왈,

“너희들 밤에 무슨 꿈이 있더냐.”

㉡ 모두 답 왈,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졸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장수를 생포하였나이다. 이 필연 오랑캐를 멸할 징조로소이다.”

원수 크게 기뻐 자신의 꿈을 이르고 장졸을 거느려 백룡담 위로 가 보니 고기 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피흘러 내가 되었더라. 원수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못 물을 떠 마시고 또 병든 군병을 먹이니 즉시 낫거늘, 그제야 군병과 전마를 일시에 먹이니 즐겨하는 소리 우레 같더라. 적병이 듣고 크게 두려워 항복코자 하더라.

- 김만중, 「구운몽」 -

* 유의 : 중국 당나라 소설 ‘유의전’의 주인공.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④ 격조 있는 표현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2.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구운몽’은 남악 형산 육관 대사의 제자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여덟 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시 꿈을 꾸어 용궁으로 들어가는 ‘꿈속 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이 현실 층위에 한정되어 실감이 나는군.
- ② ‘꿈속 꿈’의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군.
- ③ 꿈과 ‘꿈속 꿈’을 통하여 모든 현실적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군.
- ④ ‘꿈속 꿈’의 공간은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군.
- ⑤ 꿈과 ‘꿈속 꿈’의 공간이 닫혀 있어서 안정감 있는 공간 의식을 갖게 하는군.

3. ㉠에 담긴 양소유의 심정을 시조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귀거래(歸去來) 귀거래 말뿐이요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하니 아니 가고 어떨꼬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들명 기다리나니
- ② 재 너머 성 권농 집에 술 익닷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놀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 왔다 하여라
- ③ 강산 좋은 경(景)을 힘센 이 다툼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냐
진실로 금(禁)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④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殊常)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 ⑤ 선인교 나린 물이 자하동 흘러들어
반 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오

4.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②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 ③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며 ④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 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 핵심 정리

갈래 국문 소설, 몽자류(夢字類) 소설, 양반 소설, 염정 소설, 영웅 소설

성격 전기적, 이상적, 불교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당나라 때, 중국 남악 형산 연화봉 동정호(현실), 당나라 서울과 변방(꿈)

제재 꿈을 통한 성진의 득도(得道) 과정

주제 인생무상(人生無常)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

특징 · ‘현실-꿈-현실’의 이원적 환몽 구조를 지닌 일대기 형식을 취함

·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나타나며, 그중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을 이룸

· ‘조신의 꿈’의 영향을 받음

연대 조선 숙종 15년(1689년)

◇ 이해와 감상

‘구운몽’은 김만중이 남해 유배 시절 어머니 윤씨 부인을 위로하고자 지었다고 전해지는 몽자류 소설로, 주인공 성진이 하룻밤 꿈에서 겪은 일을 작품의 골격으로 삼고 있다. 불제자 성진이 꿈속에서 유교적 공명주의에 입각해 국가와 군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상의 온갖 영화를 누리고 깨어나, 인간의 부귀영화(富貴榮華)는 일장춘몽(一場春夢)에 불과하다는 불법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현실과 꿈이 교차하고 있는데, 현실의 공간이 천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꿈의 공간이 지상 세계로 설정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실의 공간으로 설정된 천상은 불교가 지배하는 곳이고, 꿈의 공간인 지상 세계는 유교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야기는 ‘현실(천상) - 꿈(지상) - 현실(천상)’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 의식 역시 ‘불교 - 유교 - 불교’의 흐름으로 변화를 보인다.

한편 꿈을 빌려 내용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이후에 창작되는 ‘옥련몽’, ‘옥루몽’ 등 이른바 몽자류 소설의 규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영웅 소설의 구조를 수용하면서도 철학적·종교적 주제를 새로운 형태로 구현한 소설로, 유교적 공명주의와 불교의 공 사상과 도교의 신선 사상이 교묘히 융합되어 한국인의 정신생활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고전소설 03. 작자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여보 장모! 춘향이냐 좀 보아야제?”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향단이 여짜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를 치거든 가사이다.”

이때 마침 바라를 댕댕 치는구나. 향단이는 미음상 이고 등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에도 간곳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 관(金冠)이요 몸에는 홍삼(紅衫)이라. 상사일념(相思一念) 끝에 만단정회(萬端情懷)하는 차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쏘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 보소.”

“모르는 말씀이오. 예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 면 사또 염문(廉問)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무어 어때, 염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르게 가만있소!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B]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 하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담락(氣絕膽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C]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몹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天方地方) 다니다가 낙상(落傷)하기 쉽소. 이홀랑은 오실라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임을 만나 만단 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답답 하여라!”

[D]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임을 생시에 본단 말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런 임을 이리 쉬이 만날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러니,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 하랴.

[E]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설워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비 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自盡)턴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만수 운환(漫垂雲.)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걸어 었고 이리 비 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샅군인 척 달려들어 둘러업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 **부용당(芙蓉堂)**의 적막하고
요직한 데 누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殮襲)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
다가,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육진장포(六鎭長布) 다시 염하여 조출한 상여 위
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다가 ㉡ **선산(先山)발**
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守節冤死)*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
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
(伸冤)*이나 하여 주오. 애고 애고, 내 신세야.”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수절원사 :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

* 신원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핵심 정리

갈래 판소리계 소설, 염정 소설

성격 해학적, 풍자적, 평민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조선 후기(숙종), 전라도 남원

제재 춘향의 정절

- 주제**
-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의 항거
 - 신분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
- 특징**
- 해학과 풍자에 의한 골재미가 나타남
 -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드러남
 -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됨

◇ 이해와 감상

‘춘향전’은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이본이 무려 12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조선 후기에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다.

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주제는 이몽룡과 퇴기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지만, 이면에 감추어진 주제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과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항거이다.

춘향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신분 제도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한다.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이러한 태도는 민중의 사회적 비판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는 ‘춘향’의 숭고한 사랑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두 가지 장애 요소를 두고 있는데, 그 하나는 춘향과 몽룡의 신분적 격차이다. 이것은 두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지만, 역설적으로 서로 강인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학도의 수청 강요인데, 이에 대한 춘향의 항거는 이몽룡과의 재회나 신분 상승의 극적 효과를 증대시킨다. 이러한 극적 구성은 해학적 표현, 토속적 어조와 어울려 독자들에게 흥미와 쾌감을 제공해 주는 요소라 볼 수 있다.

고전소설 04. 작자미상, 운영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이야기] 어느 봄날 유영이 수성궁에 놀러 가서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서는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녀의 애인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대군의 문중에 출입하던 김 진사를 보고 연정을 느낀 운영은, 궁궐 밖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여러 궁녀들의 도움으로 김 진사와 밀회를 하다가 발각되어 문초를 당한다.

“대군이 보기를 마치시고 또 한 번 자란의 초사를 다시 펴고 보시는데 노염이 좀 풀린 것 같으므로 소옥이 끓어앉아 울면서 고하였습니다.

‘전날 빨래하러 갈 때 성 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까이 여겨 군의(群議)를 물리치고 따랐사옵니다. 운영의 훼손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사옵고 운영에게 있지 아니하오니, 저의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이어 주시옵소서.’

이에 대군의 노여움이 좀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다 가두고 다른 궁녀들은 다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진사는 붓을 잡아 기록하고 운영은 옛 일을 당겨서 이야기하였는데 매우 자상하였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슬픔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다가, 운영이 진사보고,

“이로부터 이하는 낭군님께서 이야기하셔요.”

하고 말했다. 이에 진사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중략>

“이런 후로부터 저는 세상일에 뜻이 없어 목욕하여 몸을 정결히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고요한 곳에 누워 나흘을 먹지 않았지요. 마침내 한 번 깊이 탄식하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 그칠 줄을 몰랐다.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 주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인 종도 이미 없어졌고 통분함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슬퍼하여 마지않는가. 다시 인간에 나오기를 얻지 못하여 한함인가.”

김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례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이 원한을 품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낙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은데, 하물며 천상의 낙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럼으로써 인간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슬퍼한 것은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자 고궁에 주인이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랬을 뿐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후로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옥 같은 섬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 있는 꽃만이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깔리어 봄빛을 자랑할 뿐이니, 그 옛날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인사의 변하기 쉬움이 이와 같거늘, 다시 와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인가.”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 선인으로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상제께서 태청궁(太淸宮)에 앉아 저에게 옥동산의 과실을 따 오라 하기로, 제가 반도(蟠桃)를 많이 따 가지고 와서 운영과 같이 먹다가 들켜 진세에 적강되어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전의 허물을 용서하사 삼청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안(香案)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삽기로, 돌아가는 이때를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와 보았을 뿐입니다.”

김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 버린들 우리들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또 땅이 높고 하늘이 거칠어진들 우리들의 원한은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존군(尊君)과 서로 만나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존군께서는 이 원고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시와 영원히 전해 주시옵고,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김생은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 한 수를 읊었다.

- [A] 꽃 떨어진 궁중에 연작이 날고,
 봄빛은 예와 같건만 주인은 간 곳 없구나.
 중천에 솟은 달은 차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의를 적시지 않았네.

운영이 받아서 읊었다.

- [B]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천년 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예 와 놀며 옛 자취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수건을 적시네.

이때 유영도 또한 취하여 잠깐 누워 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 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신책(神冊)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내어 보고는 망연히 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했다. 후에 명산을 두고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마친 바를 알 수 없다고 한다.

- 작자 미상, 「운영전」-

[1 - 2] <보기>를 참고하여 1번과 2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이 작품의 내용 구조는 (가) 속에 (나)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 유영과 김 진사, 운영의 만남과 대화

(나) :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서술자는 ‘유영’을 전지적 시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유영’은 ‘김 진사’와 ‘운영’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 ③ (나)의 ‘김 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가)의 ‘유영’이다.
- ④ (나)에서 ‘김 진사’와 ‘운영’은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나)에는 없는, ‘김 진사’와 ‘운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나)에서 ‘소옥’은 ‘운영’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가)에서 ‘유영’은 ‘운영’과 ‘김 진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였다.
- ③ (나)에서 ‘운영’은 대군의 노여움이 다소 누그러졌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④ (가)에서 ‘운영’과 ‘김 진사’는 인간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
- ⑤ (나)에서 ‘김 진사’는 ‘운영’의 죽음 이후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

3. [A]와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김 진사가 말했던 인간사의 무상감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
- ② [A]의 차가운 ‘달’의 이미지는 비애의 감정을 반영한 것이겠지.
- ③ [B]는 [A]와 같은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면서 [A]의 시상을 이어받고 있어.
- ④ [B]의 ‘봄빛’은 비극적인 운명의 아픔이 반영되어 있어 애상적인 느낌을 주는군.
- ⑤ [A]와 [B]에는 공통적으로, 지난 삶의 자취를 돌아보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옛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야기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금기의 위반 모티프** :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어긴다는 내용. 금기에 대한 위반은 호기심,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 억압된 충동의 발산, 자유의지에 대한 열망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 **혼사 장애 모티프** :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랑하는 남녀의 혼사가 지연되거나 좌절된다는 내용. 때로 두 남녀의 결연을 위한 통과의례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 **적강 모티프** : 주인공이 원래 천상의 존재인데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내용. 주인공이 적강(謫降)한 존재라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그 신분의 비범함을 의미하지만, 장차 주인공에게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 ① ‘대군’이라는 존재는 ‘김 진사’와 ‘운영’의 혼사 장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군.
- ② ‘김 진사’와 ‘운영’이 반도를 따 먹는 것은 금기의 위반 모티프인 것 같아.
- ③ ‘운영’이 죽은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는 것은, 장차 벌어질 사건을 예고하는 적강 모티프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
- ④ 천상에서의 문제가 지상 세계로의 적강을 거친 후에 해결되는 것을 보면, 이 작품에서 혼사 장애는 일종의 통과의례인 셈이지.
- ⑤ ‘김 진사’와 ‘운영’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쫓겨난다는 내용에서 금기의 위반 모티프와 적강 모티프가 혼합된 양상을 볼 수 있어.

☐ 핵심 정리

갈래 염정 소설, 몽유 소설, 액자 소설

성격 염정적, 비극적

시점 ·외화 - 전지적 작가 시점

·내화 -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조선 초기~중기, 한양의 수성궁, 천상계

주제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

특징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음

·궁중이라는 특수한 사회를 배경으로 함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고전 소설의 보편적 주제인 ‘권선징악(勸善懲惡)’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 주는 개성적 작품임

의의 고전 소설 중 보기 드문 비극적 결말의 작품

연대 조선 숙종 때(17세기)

◇ 이해와 감상

‘운영전’은 궁녀 운영과 김 진사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몽유록 형식의 애정 소설로, ‘수성궁 몽유록(壽聖宮夢遊錄)’ 또는 ‘유영전(柳泳傳)’이라고도 한다. 안평 대군의 수성궁을 배경으로 하여, 액자 구성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즉, 유영에 대한 외부 이야기와 김 진사와 운영에 대한 내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과 김 진사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 사실감과 감동을 더하고 있다. 고전 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있는 이 작품은, 궁중이라는 중세 봉건 질서의 장벽을 뛰어넘어 자유연애를 쟁취하려는 선구적 시대 의식도 담고 있다.

■ 줄거리

선조 때 선비 유영이 안평대군의 옛 집인 수성궁 터에 들어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 잠이 들었다. 유영이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궁녀였던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 풍류를 좋아하던 안평대군이 10명의 궁녀를 별궁에 두고 시와 풍류를 배우게 하고 운영은 안평대군을 찾아온 김 진사에게 반하고, 둘은 서로의 연정을 편지로 주고받는다. 운영은 궁 밖으로 빨래하러 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김 진사를 만나 회포를 푼다. 이후, 운영은 밤마다 궁궐 담을 넘어 들어오는 김 진사와 짝을 이루는 사랑을 나눈다.

안평대군이 이 사실을 알고 대로하여 궁녀들을 문책하니, 운영은 자책감 때문에 자결한다. 김 진사는 절에 가서 운영의 명복을 비는 재를 올린 다음, 슬픔이 병이 되어 죽는다. 김 진사와 운영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사랑을 세인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한다. 유영이 다시 취중에 졸다가 깨어 보니 김 진사와 운영의 일을 기록한 책만 남아 있었다. 유영은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명산 대천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그 마친 바를 알 수는 없다.

고전소설 05. 작자미상, 수궁가(水宮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니리)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주부야. ㉠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거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명을 내리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중머리)

별주부가 울며 여쭙되,

“토끼란 놈이 본시 간사하야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며 는 조목금수(鳥木禽獸)라도 빈정거릴 터이요 맹획(孟獲)을 칠종칠금(七縱七擒)* 하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九族)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따 보시오.”

토끼가 기가 막혀,

[A]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몸쓸 놈아. 왕명이 지중 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네가 못 들었느냐. 하결(夏桀) 학정으로 용봉을(*) 살해코 미구(未久)에 망국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서 원귀되고 너의 용왕 백 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낱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옛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 내 보아라.”

(아니리)

“왜 이리 잔말이 심한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가 하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 데 세상경개가 장히 좋던가 보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토끼는 육지에 당도하여 별주부를 따돌리고 도망치지만 독수리에게 잡히는 신세가 된다.

(나) (중머리)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나 죽기는 싫지 않으나 수로 천 리 먼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온 것을 무주공산(無主空山)에 던져두고 임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아니 싫소이까.”

(아니리)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엘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수궁엘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 줍치’를 하나 주십디다.”

“아니 무엇, ‘의사 줍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글세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꼭 펴놓고 보면 구멍이 한두 서넛씩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구멍을 딱 쳐서 ‘썩은 도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툇치고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한 구멍을 툭 치며 ‘그 병아리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가 일천오백 마리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무엇이든지 내소 원대로 나오는 그런 보물을 저기저 무주공산에다가 던져 두고 죽게 되니 그 아니 딱한 일ियो.”

“너 이놈 토끼야.” / “네.”

“네 목숨을 살려 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 “그럼 그것이 어데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소주병들 듯 탁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여기냐.” / “네.”

바위 옆에다 툇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해 못살겠다. 빨리 ‘의사 줌치’좀 나오너라.”

“장군님, 내 뒷발을 잡고 놓아 달라는 대로 좀 놔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어 올 테니.”

토끼는 피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 틈에다 쑥 허니 넣고,

“장군님, 조금만 놔주시오. 아, 닿을만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조금 조금.”

뒷발을 탁 차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장을 내져다.

“세월이 여류허여…….”

“너 이놈 토끼야. 아, 내 시장해 죽겠는데 무엇이 그리 한가해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 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너 이놈 독술아.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 어서 날아가거라.”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라니.”

[B] “내가 늘그막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서 손주나 봐 주고 지나갈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 줌치’라 하는 것이다.”

-작자미상, 수궁가

*칠종칠금: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용봉: 중국 하나라의 신하로, 곁왕에게 간언하다 죽임을 당함.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
- ②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③ 창(唱)과 아니리가 교차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 ④ 의도적으로 고사(故事)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낳는다.
- ⑤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2. [A]와 [B]에 나타난 ‘토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권력자에 기대어, [B]는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B]에는 득의양양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에게 대응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자극하고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드러난 청자뿐 아니라 작품속의 다른 인물까지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

3. ㉠에 담긴 ‘용왕’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토끼가 말하는 것을 보니, 허장성세(虛張聲勢)가대 단하군.
- ② 토끼가 돌아올 때까지 수주대토(守株待兔)하듯 기다려야겠군.
- ③ 토끼가 이리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니 말로라도 대접하는 척 해주지.
- ④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는데, 토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 ⑤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유분수지, 겨우 잡아온 토끼를 놓아주어야 하다니.

4. 위 글의 ‘의사 줌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수리의 관심을 토끼에게서 돌리는 수단이 된다.
- ② 토끼는 획득 경로를 밝혀 신빙성을 높이고자 한다.
- ③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실재하지 않으면서, 실재하는 존재들에 영향을 끼친다.
- ⑤ 독수리와 토끼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 핵심 정리

갈래 판소리 사설

성격 우화적, 해학적, 풍자적, 교훈적

배경 지정 갑신세(至正 甲申歲-원나라 순제), 수궁(水宮)과 산중(山中)

제재 토끼의 간

주제 · 토끼의 기지와 자라의 충성심

·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특징 · 우화적 수법으로 인간 사회를 풍자함

· 등장인물의 행동과 언어를 통한 해학성이 드러남

· 지배층의 언어인 고사 성어, 한문투의 문장과 서민들의 일상적인 어투가 혼재된 적층 문학의 성격을 보임

◇ 이해와 감상

‘수궁가’는 ‘구토지설’을 바탕으로 하여 신재효가 개작하여 정착시킨 판소리 사설로, ‘토끼 타령, 별주부 타령, 토별가’라고도 부른다. 이 작품은 우의적(寓意的) 수법을 통해 우직하고 충직한 별주부와 영악하고 지혜로운 토끼의 행위를 대비시키면서 인간 사회의 세태를 비판·풍자하고 있다. 특히 인물에 대한 관점에 따라 주제와 풍자의 속성이 달라지는데, 별주부의 유혹에 넘어가는 토끼의 태도를 통해서는 세속적인名利(名利)를 추구하는 인간의 속물적인 근성을 풍자하고 있고, 토끼의 달변에 쉽게 넘어가는 용왕을 통해서는 지배층의 무능을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어리석은 용왕을 위해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별주부를 통해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

한편 토끼와 별주부를 통해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분수에 만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과 군주에 대한 충성심도 올바른 방향으로 추구할 때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고전소설 06. 작자미상, 서동지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호산군이 왈,

“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고자 할진대 저울만 같음이 없고, 송사의 곡직을 알진대 양쪽의 말을 들음만 같음이 없나니, 한 쪽의 말만 듣고 선불선(善不善)을 가버이 판결치 못할지라. 소진*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찌 옳다 하며 장의*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르다 하리오. 소장(訴狀) 양쪽의 말이 들은 연후에야 종횡을 깨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쥐를 즉각 잡아 와서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하고,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줄로 하여금 서대쥐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명을 듣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왈,

“내 들으니 서대쥐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괘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또 소송당한 쪽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바라. 수백 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탕탕한 기분을 발호하고 예기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소리 높여 부르며 가로되,

“서대쥐 고소를 당함에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牌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쥐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촉이 성화 같은지라.

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흩어져 버리는 듯 놀라서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쥐께 연유를 고할새 서대쥐 호흡이 급해지고 땀이 배어 등을 적시는지라. 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둥글고 두 귀 발록발록하여 허둥지둥하거늘 서대쥐 왈,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록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두려우리오.”

인하여 자손과 노복쥐를 데리고 토굴 밖으로 나오니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쥐 나옴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하는지라. 서대쥐 오소리를 보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오 별감은 그 사이 평안하셨느뇨. 나는 층암절벽 한 곳에 토굴을 의지하고 그대는 천봉만학 절승처에 산군을 모시니 유현(幽顯)*의 길이 다른지라. 마음은 항상 그윽하나 승안접사(承顔接事)*를 일차 부득하더니 오늘 관고(官故)로 말미암아 누추한 곳에 왕림하여 의외로 청안(淸眼)을 대하니 패자예차는 서서히 수작하려니와 일배 박주(薄酒)*를 잠깐 나누기를 바라노니 허락함이 어떠리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쥐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쥐더러 왈,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쥐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장자쥐 왈,

“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權道)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쥐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쥐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톱톡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놀며 희롱하리오. 관령이 얽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일배 박주에 팔려 형장(刑杖)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서대쥐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

를 청하라 권하매, 오소리 나아가 너구리를 이끌어 가로되,

“서대쥐 이처럼 간청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하리오. 잠깐 들어가 동정을 봄이 좋도다.”

너구리 가로되,

“그러면 ㉠ 전례는 어찌한다 하느뇨.”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니, 너구리 그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전각에 올라 서대쥐와 더불어 좌정 후에 다람쥐 송사한 일을 두어 마디 수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 안으로서 주찬이 나오는지라. 잔을 잡아 서로 권할새 수십 배를 지난 후에, 장자쥐 화각(畵角) 모반에 황금 스무 냥을 담아 서대쥐 앞에 드리니, 서대쥐 황금을 가져 오소리 앞으로 밀어 놓으며 가로되,

“이것이 대접하는 예는 아니나 서로 정을 표할 것이 없으매 마음에 심히 무정한고로 소소한 물건으로 옛 정을 표하나니 두 분 별감은 혐의치 말고 나의 적은 정성을 거두소서.”

오소리 웃으며 왈,

“서대쥐의 관대함이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를 끼치시니 받는 것이 온당치 못하오나 감히 물리치지 못할지라. 그러나 서대쥐는 조금도 염려치 말고 다람쥐와 결송케 하면 내일 재판할 때에 우리 둘이 집장(執杖)할 터이오니 어찌 다람쥐를 중죄(重罪)하여 서대쥐의 분풀이를 못하리오.”

하고 인하여 서대쥐와 더불어 떠나더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

* 소진, 장의 :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한 달변의 정치가.

* 패자 :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글.

* 유현 :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곳과 눈에 띄는 곳.

* 승안접사 : 웃어른을 만나 뵙는 일.

* 박주 : 맛이 좋지 못한 술.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④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로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 작중 인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쥐 : 두 형졸에 대한 나의 대접이 소홀하여 부끄럽다.
- ② 백호산군 : 다람쥐 말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③ 너구리 : 이 기회에 서대쥐에게 돈을 뜯어내야겠다.
- ④ 장자쥐 : 형편에 따라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 ⑤ 오소리 : 평소 서대쥐의 행실이 불만스러웠다.

3. ㉠에 내포된 의미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죄를 자백하겠다고 하는가?
- ② 음식은 준비했다고 하는가?
- ③ 재물을 바치겠다고 하는가?
- ④ 재판정에 나가겠다고 하는가?
- ⑤ 교만함을 사죄하겠다고 하는가?

4. 위 글을 읽고 나서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진실성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두었군.
- ② 관(官)의 힘에 기대어 위세를 부리는 인물을 풍자하고 있군.
- ③ 인정세태를 그리기 위해서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기법을 사용했군.
- ④ 돈의 힘을 알고서 능란하게 쓸 줄 아는 인물의 처세를 보여주고 있군.
- ⑤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재판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군.

☐ 핵심 정리

갈래 우화 소설, 송사 소설, 풍자 소설

성격 우의적, 교훈적, 풍자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중국 당나라, 웅주

제재 은혜를 모르는 남편 다람쥐와 무고하게 송사 사건에 휘말린 서대주

주제 사필귀정(事必歸正), 권선징악(勸善懲惡)

특징 · 동물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남

· 대립하는 두 인물을 통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이해와 감상

‘서동지전’은 간악한 다람쥐가 어질고 후덕한 서대주(쥐)에게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하게 그를 모함하였다가 관관 호랑이〔白虎山君〕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우화 소설이다. 이 작품이 널리 향유되었던 조선 후기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보면, 다람쥐는 조선 후기의 몰락한 양반 계층을, 서대주는 조선 후기 새롭게 부상한 신흥 상공인 계층을 표상한다.

이 작품은 권선징악이라는 관념적, 유교적 주제 이면에 봉건적인 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려는 근대 지향적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남편 다람쥐를 질책하는 계집 다람쥐의 모습에서 부창부수(夫唱婦隨)와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봉건적인 사고방식과 도덕관에 대한 비판, 전통적인 윤리관을 타파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오소리와 너구리를 통해서도 당대 하급 관리의 부패상과 정치적 현실이 지닌 모순을 찾을 수 있다.

고전소설 7. 박지원, 호질(虎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北郭先生)이었다. ㉠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校正)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육경(六經)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天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諸侯)가 그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東里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를 봉(封)해서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고 정표(旌表)해 주기도 했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 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이 서로 지껄이기를,

㉡“강 건너 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삽는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하고 간청하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 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鴛鴦在屏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耿耿流螢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뤄
維鬻維錡	저기 저 가마솥 세발 솥은
云維之型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興也	흥야라

다섯 놈이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져서 여우구멍이 생겼대.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대.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의 뺨을 받을 수 있다더라. 우리 저 놈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눠 갖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 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킁킁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 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아뢰다.

㉣“호랑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이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웁나이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謏)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먼전에서 아침을 떠나 누가 끝이들겠느냐?”

□□□□ 중략 □□□□,

북곽 선생은 자리를 옮겨 부복(俯伏)해서 머리를 새삼 조아리고 아뢰었다.

㉔“맹자(孟子)에 일렀으되 ‘비록 악인(惡人)이라도 목욕 재계(齋戒)하면 상제(上帝)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웁니다.”

북곽 선생이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 동정이 없기에 참으로 황공해서 절하고 조아리다가 머리를 들어 우리러보니, 이미 먼동이 터 주위가 밝아오는데 범은 간 곳이 없었다. 그 때 새벽 일찍 발 갈러 나온 농부가 있었다.

“선생님, 이른 새벽에 들판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북곽 선생은 엄숙히 말했다.

㉕“성현(聖賢)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아니 굽힐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느니라.”

- 박지원, 호질(虎叱)

1.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등장 인물의 언행을 회화화(戲畵化)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는 등장 인물들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 ③ 비현실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흥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동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우화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의 태도를 어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2. 2. 윗글의 ‘북곽 선생’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는 총명함을 갖추고 있군.
- ② 간에 가 붙고 쓸개에 가 붙는 지조 없는 태도를 지녔군.
- ③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군.
- ④ 오직 자기뿐인 듯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모든 이를 업신여기군.
- ⑤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 도대체 신중한 구석이라곤 전혀 없군.

3. 3. <보기>를 참고로 할 때, <중략> 부분에서 ‘범’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기문(奇文)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위선적 인물을 대표하는 복곽을 내세워 당시의 지배 계급, 즉 선비(실은 선비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거짓 학문과 그로 인한 횡포를 풍자. 비판하는 작품이다.

- ① 너희가 밤낮으로 쪼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노략질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한 놈은 돈을 불러 형님이라 부르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 ② 너희들이 나를 백수의 왕이라면서 칭송하면서도 내 가족과 뼈를 얻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만물의 파괴자가 아닌가? 그래서 너희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고들 한다.
- ③ 부드러운 털을 쪽 빨아서 아교에 붙여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오징어의 시커먼 물에 적셔서 종횡으로 치고 찢러 대는데, 이 병기(兵器)를 휘두르면서 서로 잔혹하게 잡아먹기를 너희들보다 심히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 ④ 너희들은 소나 말들이 태워 주고 일해 주는 공로와 따르고 충성하는 정성을 다 저버리고 날마다 푸줏간을 채워 뿔과 갈기도 남기지 않고, 다시 우리의 노루와 사슴을 침노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산에도 들에도 먹을 것이 없게 만든단 말이나?
- ⑤ 너희들의 먹이를 얻는 방법으로 덧이나 함정을 놓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모자라서 새 그물·노루 망(網)·큰 그물·고기 그물·수레 그물·삼태 그물 따위의 온갖 그물을 만들어 냈으니, 처음 그것을 만들어 낸 너희 놈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재앙을 끼친자이다.

4. 4. ㉠과 표현법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 ② 범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 ③ 밤이 되어야 잠을 자고,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꾸야 님을 보지.
- ④ 어제 선 본 사람은 착해 보이지만 행동거지는 칠칠치 못하던데.
- ⑤ 규칙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심판을 보았으니, 오죽이나 공정 했겠어.

5. 5.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말하기 방법을 사용한 것은?

<보 기>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다라 앉아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리닫다가 두힘 아래 자빠졌구나.
모쳐라, 날넌 나이기에 망정이지 에헬질 번 하괘라.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소설, 단편 소설, 우화 소설, 풍자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우의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정(鄭)나라 어느 고을

제재 양반의 허위의식

주제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 비판

특징 · 우의적 수법을 사용함
·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하여 제시함
·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삶에 대해 비판함

연대 조선 영조 때(18세기 후반)

출전 “열하일기” 중 ‘관내정사(關內程史)’

작가 박지원(204쪽 참고)

◇ 이해와 감상

‘호질’은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이중적 행동과 의인화된 인물인 ‘범’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하여 당시 양반 계층의 부패한 도덕 관념과 허위의식,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부도덕성을 풍자한 작품이다.

작가는 명망 높은 유학자로 존경 받는 ‘북곽 선생’과 열녀로 추앙받는 ‘동리자’의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 사대부 계층의 부패한 도덕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범 앞에서 보이는 ‘북곽 선생’의 비굴한 행동과 범이 사라진고 난 뒤 농부 앞에서 보이는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 끝까지 위선과 허세를 버리지 못하는 이중성도 풍자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범’이라는 의인화된 대상을 내세워 ‘북곽 선생’을 꾸짖고 있다. 여기서 범은 성리학적인념만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관념성과 부도덕성을 비판해 온 연암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호랑이샘 생존국어



4 독서 탐구

- 1 인문·예술
- 2 사회·문화
- 3 과학·기술
- 4 주제 통합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 사회·문화 □ 과학·기술 □ 주제·통합 □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호랑이샘 생존국어



4 독서 탐구

- 1 인문·예술
- 2 사회·문화
- 3 과학·기술
- 4 주제 통합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호랑이쌤 생존국어



4 독서 탐구

- 1 인문·예술
- 2 사회·문화
- 3 과학·기술
- 4 주제 통합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호랑이샘 생존국어



4 독서 탐구

- 1 인문·예술
- 2 사회·문화
- 3 과학·기술
- 4 주제 통합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Ⅱ 독서	단원	인문·예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주제·통합 <input type="checkbox"/>
----	----------------	----	---

독서 탐구 활동지 (강)

1. 내용 정리 (개요표 혹은 논리 구조도 혹은 개념지도 혹은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하기)
 ※ 줄글로 작성 시 점수 없음

2.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어 풀이 혹은 잘 모르는 어휘 찾아 뜻풀이 적기(최소 4개 이상)
 ※ 개념 설명 없이 단어나 어휘만 적성한 경우 점수 없음

1.	
2.	
3.	
4.	
5.	
6.	

3.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기

문항	본인이 체크한 번호	정답 번호	1. 맞은 경우 정답으로 체크한 이유를 서술하거나 근거를 찾아 쓰고, 2. 틀린 경우 오답 정리 하시오.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06번			